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BROCHURE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BROCHURE

한국국제협력단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BROCHURE

KOICA | ODA 교육원

GENE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BROCHURE



CONTENTS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 I. 들어가며 04
- II.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 20
 - 1.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ENE)의 목적 및 활동 22
 - 2. GENE의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23
- III. 2017년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34
 - 1. 12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36
 - 2. 20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60
- IV. 2018년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100
 - 1. 7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102
 - 2. 13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116

I 들어가며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1. 개발교육
2. 세계시민교육
3.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
4.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I. 들어가며

01 개발교육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이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는 토대 위에서, 글로벌 이슈와 개발 이슈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 획득의 차원에 그치지 않으며, 세계적 관점을 통한 통합적·비판적·창조적 사고 능력 학습, 더 나아가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개발교육은 초기에는 개발원조, 해외봉사, ODA에 관한 교육 및 지식전달에 그쳤던 것이 현재는 세계시민으로써의 자의식과 책임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까지 발전하여 진행되고 있다.

개발교육은 1960년대 유럽의 개발 NGO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은 재건에 성공하였고,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국제개발의 관심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 3세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생독립국을 돕는 국제개발 및 자원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개발 NGO들 실무자 및 해외자원봉사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은 본국 내의 시민들 사이에서의 국제개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보며, 국제개발 및 해외원조에 대한 인지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 개발교육이 자연스럽게 파생되었다.

1960년대 시작된 개발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특히, 1990년대-2000년대는 개발교육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지원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알리고, MDGs 달성을 위한 원조자금 증액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교육에 대한 자금이 대대적으로 증액되었고,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개발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민간기관에 의해 비정규교육으로 시작된 개발교육은 점차 정규교육과정으로 범위를 확장해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국가교육과정 제정으로 공교육 차원에서 개발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영국 내 개발교육 확산에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역할이 컸지만, 교육부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00년 개정된 정규교육과정에서 1) Global Dimension 2) Citizenship 3) Community Cohesion이 필수로 다루어지도록 강제하여, 개발교육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란 이름하에 정규교육과정에 다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DFID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Developing a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공교육 차원에서의 개발교육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¹

개발교육은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을 전후로 UN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 양성이 핵심 교육 의제가 되면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발전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다소 원조공여국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교육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SDGs 수립을 전후로 하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용어인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관련 용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02 세계시민교육

1) 세계시민교육이란?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한 교육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빈곤, 상호의존성, 평화, 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는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UN이 정한 SDGs의 주요 목표로도 다뤄지는 교육이다. 유네스코(UNESCO, 2014)는 세계시민교육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SDGs 속 세계시민교육

(1)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이어 2015년 9월 UN총회에서 발표된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2030까지 달성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이 아닌 지구촌 전체가 이행해야 할 보편적이고, 전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우리 모두의 목표이다.

(2) SDGs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SDGs의 4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 세부 목표인 4.7 2030년 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4.7의 세부 목표 지표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 교육, 학생 평가 포함 여부가 포함된다.

3) 다양한 교육 목표 속 세계시민교육

SDGs 이외에도 세계시민교육은 2012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의 3대 우선순위, UNESCO 중기전략(2014-2021)의 3대 교육목표 중 하나로 지정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1)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2012)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월 제 67차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출범된 범세계적인 이니셔티브로 ① 모든 어린이의 취학(Put Every Child in School), ② 교육의 질 제고(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③ 세계시민 양성(Foster Global Citizenship)을 3개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GEFI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세 가지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지원 강화(직업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건립, 초청 연수 사업, ICT를 활용한 교육사업) ②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 추진, 교사 부족 국가 한국인 교사 파견 등 지원) ③ 세계시민 교육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UNESCO 및 UNAИ와 협력 등)²의 3가지 목표로 삼고, 위 목표를 실현하고 기여하기를 GEFI 회담을 통하여 약속하였다.

(2) 유네스코 중기전략(2014-2021)³

유네스코는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향후 8년을 위한 중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포괄목표는 평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 우선순위로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을 선정하고, 이하 9개의 전략적 목표를 선정하였다.

- ①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체계 개발 지원
- ② **창조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Empowering learners to be creative and responsible global citizens)**
- ③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증진 및 미래 교육의제 설정
- ④ 국가, 지역, 전 지구적 차원의 과학, 기술, 혁신체제 및 정책 강화
- ⑤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과제에 관한 과학 분야 국제협력 증진
- ⑥ 통합적 사회발전 지원, 문화간 화해를 위한 문화간 대화 증진, 윤리 원칙 증진
- ⑦ 유산 보호와 진흥, 전승
- ⑧ 창의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 ⑨ 표현의 자유, 미디어 발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증진

총 9개의 전략목표 중 교육목표는 ①-③ 세 가지로, 이 중 2번째 전략목표에서 중점적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i) 세계시민을 위한 평화 및 인권교육 장려 i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지원 iii) 건강 교육 장려(HIV, 통합적인 성교육, 안전하고 동등한 교육 환경 등)를 세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3) UNAI(UN Academic Impact/2010)

UNAI는 UN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 기여에 있어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며, UN의 목표 중 인권 보호 및 증진, 교육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성, 갈등 해결 등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 UNAI는 아래와 같이 10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며, 그중 4번째로 교육을 통하여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① 빈곤 해결: 교육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에 노력
- ② 역량 강화: 전 세계에 고등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노력
- ③ 모두를 위한 교육: 성, 인종, 종교 혹은 민족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노력

④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양성에 노력

- ⑤ 고등교육 접근성: 고등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기술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위한 노력
- ⑥ 인권: 요구, 의견, 발언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
- ⑦ 타문화 교류: 교육을 통한 문화 간 대화 및 이해증진 등을 위한 노력
- ⑧ 평화와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한 평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 ⑨ 지속가능성: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
- ⑩ UN 헌장: 유엔헌장에 내제된 원칙을 위한 노력3)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4)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우리 정부는 UN GEFI 고위급회담(‘14.9)에서 ‘한국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지지국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의제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세계교육포럼(‘15.5)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핵심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외도 유네스코 본부 연설(‘15.12)을 통해 한국 정부의 세계시민교육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개발교육, 글로벌 교육, 글로벌학습,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중 특별히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교부-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산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대국민 ODA 이해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0년 ODA교육원을 개원하였다. ODA교육원은 ODA교육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한국 최초의 조직으로 초·중·고 및 대학(원)생, 교원, 강사,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세계 시민교육을 제공하며, 인프라, 다양한 교과과정과 콘텐츠, 국제개발협력 전

문 강사풀 등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축적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KOICA는 ODA교육원 외에도 지구촌체험관(성남), 월드프렌즈빌리지(영월), 부산사무소, 지방 국제개발협력센터(강원, 대구, 인천, 전북, 제주)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KOICA는 지난 2017년 KOICA 세계시민교육 중장기 전략(2017-2021)을 수립하여, 세계시민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대국민 ODA 이해증진 및 국민 지지기반 강화 ② SDGs 내 세계시민교육 목표(4.7)달성 ③ SDGs 달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세부목표로 수립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 특별강의, 미래세대 ODA리더 개발교육이 진행 중이며, 교원을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 강사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이해증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해 국내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및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안내 브로셔 발간, 다양한 교육 교재 및 교보재 개발을 통해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육부-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을 세계시민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가 역량 강화, 국제교사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동시에 세계 시민교육 정책 가이드라인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주요 동향,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

제이해교육원은 교육 역량강화, 국제교류 교사 프로그램, 연구 및 정책개발, 정보구축 및 확산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확산 및 실현 방안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시민사회⁴

시민사회에서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OICA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가 발간한 2019년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에 의하면, 아래 약 28개 시민사회 및 민간 기관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고앤두, 굿네이버스, 그린티처스, 기아대책, 더나은세상, 미래희망기구,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세계시민교육 보니다, 세계시민교육연구소(EGC),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커피, 아프리카인사이트, 에너지팜, 온해피,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위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협회세계연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캠프, 코피온, 한국해외봉사단원협의회(KOVA),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호이,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굿네이버스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촌나눔인성여행, Oh Heart!어린이 NGO 활동가(강사파견), 지역사회시민교육(강사파견), ME TO WE_NGO 활동가(강사파견), Good Action 청소년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손인형극을 진행하는 코코몽 지구마을여행,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공연형 교육인 어사 박문수 학교 출두요, 글로벌시민교육, 체험학습형 봉사교육 프로그램 한 톨나눔캠페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월드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교원을 대상으로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 일

반인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과정 및 시민대상 세계시민교육 공감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재인 '배고픈 세계, 식량의 위기', '연장대신 연필을!', '아동권리협약'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부산에서 권리체험센터를 진행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동권리 교육, 비차별 이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03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⁵

앞서 본 바와 같이 UN은 SDGs 수립을 전후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의 핵심 의제화하며, 이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이 시기 새로 부상한 용어가 아니며, 영국에서는 개발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199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많은 유럽국가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개발교육(global development education),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럽 배경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세계시민교육은 대부분 개발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교육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내에서 본 교육의 조정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의 경우,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고서 발간 및 회의 시 통일성을 위해 대표적인 용어로는 글로벌교육을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내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교육이 성장·발전해온 아일랜드는 여전히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발교육과 글로벌학습을 혼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글로벌학습을, 정부원조기관인 오스트리아 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은 개발교육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Oxfam 등의 개발 NGOs를 위시한 시민사회는 세계시민교육이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만 보면, 개발이라는 협의의 개념만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세계시민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 한국에서 글로벌교육은 국제 교류 및 개도국 협력을 위한 교육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혼돈을 배제하기 위해서 KOICA 및 국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이하 KCOC)에서는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 내에서도 긴 개발교육의 역사 및 양질의 교육으로 유명한 아일랜드는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고집하고 있으며, 글로벌개발교육이라는 혼합용어를 사용하는 체코 같은 국가들도 있다. 단 본 교육의 목적이 세계시민 양성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차이가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특별히 공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계시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f global citizens 등 다양한 용어가 서구권 및 UN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지구촌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교

육부를 위시한 공교육 현장에서 본 용어가 세계시민교육으로 통일된 것을 고려하여, 공교육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단, ‘세계’라는 용어는 global이 아닌 world를 의미하고 있으며, 글로벌시민교육의 시민교육의 태생적 배경인 글로벌거버넌스의의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공교육 대상의 교육외의 정책적 문서 등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수상작 모음집에서는 유럽 차원, 구체적으로 GENE에서의 활동 중인 유럽 국가의 교육을 담고 있어 글로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에서는 글로벌교육이란 용어가 다른 의미로 먼저 이해되고 있어,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수상작 모음집에서는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개발교육은 본질적으로 국경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 책임감,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국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교류도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및 민간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인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과 같은 연대체를 보유하고 있다. 본 교재는 GENE의 활동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활동인 개발교육 혁신공모전(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을 통하여,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혁신적 개발교육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시민사회, 공교육 전반에 개발교육(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폭증하여,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실시된 KOICA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통해, 매년 국내 관련기관들이 교류·소통하는 장이 제공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기관

간에도 자발적인 학습 및 소통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관들과 해외 기관들 간의 교류·협력은 지엽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교육에 대해 늘어나는 관심과 참여만큼 시민사회 실무자들과 초·중·고 교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로부터 해외에서 실시되는 개발교육의 사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문기도 많았다. 이에 따라, KOICA ODA교육원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2013), 개발교육 이슈리포트(2015) 교재 발간을 통해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해외 사례에 대한 목마름은 이미 개발교육이 오랜 기간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 간 교류도 활발한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여, 유럽 지역 개발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GENE에서는 2017년부터 유럽 전역의 개발교육의 혁신적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수상 모음집으로 모아 다시 유럽 전역에 공유하고 있다. 본 수상작 모음집은 GENE에서 2017-2018년간 실시된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의 52개 프로젝트를 모아 발간한 GENE의 영문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도 혁신적이라고 인정받은 프로젝트들인 만큼 새로운 사례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한국의 실무자, 교원, 강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혁신공모전에 수상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개발교육이 대부분 여전히 내국인에 의한 내국인을 위한 교육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적지 않은 수상 프로젝트들이 파트너국을 포함한 타 국가 구성원들과 함께 시행하는 교육이 많았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국가내 교류·협력이 많아, 개발교육의 경우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오랜 국제개발과 개발교육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파트너국가 구성원과의 협업, 혹은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 국가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 지역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04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KOICA 및 개발 NGOs의 경우, 파트너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초청해서 들어와 있는 연수생들도 많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동체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연합처럼 발전된 수준의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한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형식에 있어서도, 지식 함양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차원까지 가는 방식이 많았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공교육, 민간 기관 및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는 프로젝트가 많았다. 단순히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학습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교육의 보다 근원적인 과제인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함양,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면도 돋보였다.

유럽이 난민문제와 극단적 폭력주의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혹은 난민에 의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인상적이었다. 난민 및 다문화 인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일찍 경험한 유럽의 사례에서 가져올 함의와 적용점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 강의 및 토론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인터넷 포털, 디지털 교류 프로그램, 연날리기, 방탈출 게임, 전통음악, 건축, 라디오 생방송, 관광, 창업, 미술, 코딩, 축제, 스카우트, 저널리즘, 여권,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방법을 접목한 것이 참신했다.



II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1.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ENE)의 목적 및 활동
2. GENE의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 1) GENE 2017 & 2018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소개
 - 2) 선정 절차
 - 3) 2017년 선정 프로젝트
 - 4) 2018년 선정 프로젝트

II.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⁶

01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ENE)의 목적 및 활동

EU 국가들은 2001년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유럽의회 개발교육 결의서'를 채택했으며⁷, 유럽 국가 간 개발교육 관련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본 교육의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하여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인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을 구성하였다.

2001년 처음 6개국의 6개 국가기관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원탁회의(Roundtable), 국가별 개발교육 동료평가(Peer Review)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30개가 넘는 국가들의 50여개의 정부부처와 기관 등과 함께 정책학습 공유를 하고 있다. GENE은 ① 각 국의 개발교육 전략을 공유하고, 경험과 우수사례를 기반한 정책을 장려하며, ② 참여국간의 정책 학습(policy learning)내용들을 공유하며, ③ 개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NE의 활동은 2012018년 기준 아래와 같이 11개의 정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및 교육부(Austrian Development Agenc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ustria)
- 벨기에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lgium)
- 프랑스 개발협력청 및 외무부(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nd the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Engagement Global'(Engagement Global, with funding from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Irish Aid'(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reland)
- 룩셈부르크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Luxembourg)
- 몰타 교육고용부(Ministry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Malta)
- 포르투갈 외교부 문화언어협력청(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amões -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Language, Portugal)

- 슬로바키아 국제개발협력단(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lovakia)
- 슬로바키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Slovenia)

GENE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① 정기적으로 각국 부처와 기관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② 구성원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그들의 전략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③ 유럽 개발교육 동료 평가 과정을 위한 동료학습에 참여하고, ④ 제언, 교육·역량강화, 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구성원을 지지하며, ⑤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교육 품질을 중점을 둔 활동을 한다.

GENE은 유럽 국가들의 개발교육 영역에서의 인적교류, 동료학습, 정책연구, 국가전략개발 및 질적 개선을 지원하며, 전 유럽인들이 전 세계인들과 연대를 통해 양질의 개발교육을 받게 되는 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02

GENE의 혁신공모전⁸

1) GENE 2017 & 2018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소개

GENE(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은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을 통해 개발교육 혁신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알린다. 본 공모전은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은 물론 전 세계가 마주한 현실에 눈과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개발교육 프로젝트를 시상한다.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은 창의성, 참여, 실천, 시너지, 혁신을 통해 변화를 현실화하는 개발교육, 궁극적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교육을 장려한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유럽 국가들이 개발교육 이니셔티브를 시행했다. 비정규 교육이건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규 교육이건 관계없이, 개발교육은 아동, 청년, 학생, 교육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의사결정자들 및 기타

사회 주체들의 관점,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과 전 세계 간의 상호연결성을 반영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사회적 배제, 빈곤, 이민, 인권 침해와 무관용 같은 이슈들의 해소는 물론, 비판적 사고, 동정심, 공감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의 발달에도 기여했다.

극명하게 양극화된 세상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 지원과 박수를 보내고 또한 표창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사회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개발교육이 추구하는 관용, 연대, 비폭력 등의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혁신적 개발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같은 도전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는 이니셔티브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GENE은 대부분의 개발교육 기금들이 혁신 노력보다 최종 결과만을 조명하면서 실패를 통해 성장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부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 실패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혁신 기금이라면, 10%가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는 잠재적 돌파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90%가 실패하는 이니셔티브에도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17년과 2018년의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은 해당년도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유럽 내 개발교육 프로젝트들을 집중 조명한다. 본 공모전에는 혁신의 모범 사례이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유럽 전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이 선정되었다.

2017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평가회의에서 국제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비판적 교육학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내용과 방법론까지 포괄하

는 교육의 한 형태로서 개발교육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혁신의 개념은 전환 학습 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전환 학습은 권력 관계의 변화,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중요 도전과제들,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권한 신장,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혁신이 모험과 실험의 자유를 허용하는 환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집중 조명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2018년에는 신청 절차의 제한을 없애 신청자가 전환학습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프로젝트와 연결 지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GENE은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을 통해 유럽의 개발교육 프로그램들로부터 교훈과 반성의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접근법과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이니셔티브들이 개발교육의 기금 후원자 및 정책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사고, 창의성, 영감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 선정 절차

개발교육 혁신공모전은 2017년에는 총 82개의 프로젝트 2018년에는 총 70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국제적으로 복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선정절차를 통하여, 최종 우수작으로 2017년 12개, 2018년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각각 10,000 유로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수상작 모음집에는 상기 수상 프로젝트 외에도 우수 프로젝트를 2017년에는 20개, 2018년에는 13개를 추가로 포함했다.

가. 평가 항목

본 수상 모음집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래 영역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과를 인정해 선정된 것이다.

| 2017년 평가항목(8개) | 2018년 평가항목(9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새로운 사고방식(outside-the-box thinking)을 보여준 독창적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개인적/집합적 성장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믿음이나 행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법을 말하며, 긍정적 변화의 동인으로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도 포함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결성(지역사회와 세계 간의 상호연결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와 연결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글로벌(global)'이라고 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결성(지역사회와 세계 간의 상호연결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와 연결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글로벌(global)'이라고 부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변화 행동, 태도,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법을 강화시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접근법 정규, 비정규 교육 환경을 불문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접근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접근법 정규, 비정규 교육 환경을 불문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학습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새로운 사고방식(outside-the-box thinking)을 보여준 독창적 프로세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목적과 결과 그리고 수혜자의 후기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는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목적과 결과 그리고 수혜자의 후기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는 프로젝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outreach) 개발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프로젝트. 이를테면, 저숙련 실업 인구, 고용 상태가 아니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하는 청년 인구, 그리고 급진적 국가주의,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 등이 해당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outreach) 개발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프로젝트. 이를테면, 저숙련 실업 인구, 고용 상태가 아니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하는 청년 인구, 그리고 급진적 국가주의,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 등이 해당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및 지속가능성에대한 잠재력 장기적인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경험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에 대한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에 영감 GENE은 정책 학습을 지원하며, 그런 이유로 공공 정책 차원에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특히 환영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에 영감 - GENE은 정책 학습을 지원하며, 그런 이유로 공공 정책 차원에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특히 환영함 | |

나. 선정과정

| 단계 | 2017년 선정과정(3단계) | 2018년 선정과정(4단계) |
|-----|------------------------------------------------------------------------------------------------------------------------------------------------------------|------------------------------------------------------------------------------------------------------------------------------------------------------------------------------------------------------------------------------------------------------------------------------------------------------------------------------------------------------------------------------------|
|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 사무국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선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 사무국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선발함 • 신청자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국제선정위원회에 제출함 • 후보자들 간 동료 심사 프로세스 준비함 |
|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 공모전 참가자와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가 진행하며,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선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들이 동료 심사프로세스를 주도해서 진행하며, 각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서/프로젝트를 심사함 • 이때, 프로젝트의 전환학습요소에 집중해 비판적 피드백을 주는 과정도 포함함 • 신청자들은 자료를 심사한 뒤 프로젝트에서 가장 훌륭한 두 가지 요소와 프로젝트의 개선에 도움이 될 한 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하여 A4 1장 분량으로 정리함 |
|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 이사회가 국제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정을 내리며, 이는 다양성과 지역적 균형까지 고려하여 심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과정은 GENE 참가자와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가 진행하며,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선발함 • 국제선정위원회는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선정절차동안 온라인으로 2차례 회의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회의)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준 일치 목적 - (두 번째 회의) 이 단계에서 정해진 예비결과에 대해 재고 |
| 4단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 이사회가 국제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정을 내리며, 이는 다양성과 지역적 균형까지 고려하여 심사함 |

다. 국제선정위원회 구성

| 2017년 구성 | | 2018년 구성 | |
|------------------------------|-------------------------------------------------------------------|------------------------------|-------------------------------------------------------------------|
| Mr. Wouter Boesman | PLATFORMA 디렉터 | Mr. Florian Coutal | 프랑스 유럽외무부 시민 사회센터(Pôle société civile) 에디터 |
| Mr. Florian Coutal | 프랑스 유럽외무부 시민 사회센터(Pôle société civile) 에디터 | Ms. Satu Elo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자문위원 |
| Ms. Satu Elo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자문위원 | Ms. Laia Vinyes Marce | PLATFORMA 프로젝트 관리관 |
| Ms. Francesca Romana Minniti | CONCORD 정책 및 지지 코디네이터 | Ms. Francesca Romana Minniti | CONCORD 정책 및 지지 코디네이터 |
| Mr. Martin Náprstek | 체코개발청, 파트너관계 부서장 | Mr. Martin Náprstek | 체코개발청, 파트너관계 부서장 |
| Ms. Yael Ohana | 독일 'Frankly Speaking - Training, Research & Development' 창립자 겸 이사 | Ms. Yael Ohana | 독일 'Frankly Speaking - Training, Research & Development' 창립자 겸 이사 |
| Ms. Su Yeon Park | 한국 KOICA ODA교육원 과장, 개발교육전문관 | Ms. Su Yeon Park | 한국 KOICA ODA교육원 과장, 개발교육전문관 |
| Mr. Alessio Surian |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 부교수 | Mr. Alessio Surian |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 부교수 |
| Ms. Irma Šinkovec |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과 선임자문관 | Ms. Irma Šinkovec |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과 선임자문관 |

라. 진행 일정

| 2017년 구성 | | 2018년 구성 | |
|-------------|-----------------------------|-------------|--------------------------|
| 개발교육 혁신공모시작 | 2017년 5월 1일 | 개발교육 혁신공모시작 | 2018년 4월 20일 |
| 신청마감 | 2017년 7월 31일 | 신청마감 | 2018년 6월 8일 |
| 최종 선정 | 2017년 9월 22일 | 동료 심사 마감 | 2018년 7월 1일 |
| 2017년 시상식 | 2017년 10월 6일 *사이프러스 니코시아 | 최종 선정 | 2018년 9월 10일 |
| | | 2018년 시상식 | 2018년 10월 5일 *벨기에 브뤼셀 |

3) 2017년 선정 프로젝트

가. 12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ActionAid Hellas | 그리스 | Action Week for Education 2017: One song, many schools, one world! |
| CARE International Balkans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Men and Boys as Partner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the Prevention of Youth Extremism and Violence in the Balkans |
| Future Worlds Center | 사이프러스, 영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독일 | Map Your Meal |
| Glopolis | 체코 공화국 | Eat responsibly! An action-oriented global learning programme for EYD 2015 and beyond |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Centro per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 이탈리아 | Storie da Cinema |
| Louvain Coopération | 벨기에 | IngénieuxSud |
| Salesian Missionary Voluntary Service - Youth for the World | 폴란드 | Villages of the World - the Global Education Park |
| Team Up 2 Teach3423 |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 Lifeline Teaching |
| World University Service (WUS) | 독일 | Across Boundaries - Global Learning in Vocational Education |
| Xena Centro Scambi e Dinamiche Interculturali | 이탈리아 | Go Deep Project |
| YES Akademia(YAKA) | 프랑스 | IMPOWER |
| Zivica - Centre of Environmental and Ethical Education | 슬로바키아 | Socratic Institute |

나. 20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APROK, o.p.s., | 체코 공화국 | Čokoška |
| Arigatou International, Geneva Office | 루마니아, 스위스 | Learning to Live Together: Strengthening Teachers Competencies for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Learning in Romania |
| Bourgogne-Franche-Comté International | 프랑스 | Tandems Solidaires |
| Team Up 2 Teach | 폴란드 | E-globalna in Practice |
| Défi Belgique Afrique | 벨기에 | Do It with Africa/Asia |
| Emergency Architecture & Human Rights | 이탈리아 | Architecture in Movement |
| Fairtrade Germany | 독일 | Fairtrade Campaigns |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Felcos Umbria - Fund of Local Authorities for Decentralized Cooperation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 이탈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스페인 | Don't waste our future! Building a European youth alliance against food waste |
| Finn Church Aid | 핀란드 | Teachers Without Borders Finland |
| Forum for Equitable Development/ Forum za enakopraven razvoj - FER | 슬로베니아 | Escape and Flight |
| GEOMOUN NGO | 벨기에 | Le Son d' Enfants/The Sound of Children |
| Humanitas - Centre for Global Learning and Cooperation | 슬로베니아 | Through the Refugee's Eyes |
| Oxfam Italy, CARDET, University of Lodz, Jaunimo Karjerosn Centras, Oxfam GB | 이탈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영국 | Future Youth Schools Forums |
| Par - Respostas Sociais, Associação Renovar a Mouraria, Instituto Marquês de Valle Flôr | 포르투갈 | Coordenadas para a Cidadania Global / Coordinates for Global Citizenship |
| Peipsi Center for Transboundary Cooperation | 에스토니아 | SAME World/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programme in schools |
| Pontis Foundation | 슬로바키아 | Sote ICT |
| Salesian Association of Don Bosco | 체코 공화국 | Today I eat as a ... |
| The National College of Art and Design | 아일랜드 | The Change Lab; re-conceptualising art and design education through the tripartite lens of the artist, teacher-activist |
| Trias | 벨기에, 에콰도르, 페루 | The potato as catalyst for innovative global education and multi-stakeholder involvement - in Belgium and in Peru |
| UdiGitalEdu/University of Girona | 스페인 | Inventors4Change |



4) 2018년 선정 프로젝트

가. 7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Centre de Recherche et d'Information pour le Développement CRID | 프랑스 | The Festival des Solidarités, acting togethe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CHANGE - Chancen Nachhaltig Gestalten e.V. | 독일 | WeltFAIRsteher |
| Global Action Plan UK | 12 개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몰타,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버뮤다 | Water Explorer |
| Humanitas - Centre for Global Learning and Cooperation | 슬로베니아 | Club of global education teachers |
| NaZemi | 체코 공화국 | Scouts and Guides: Active Global Citizens |
| People in Need Slovakia | 슬로바키아 | World between the Lines |
| WorldWise Global Schools | 아일랜드 | Global Passport Award |

나. 13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 기관 | 국가 | 프로젝트 명 |
|---------------------------------------------------------------------------------------------------------------------------------------------------|------------------------------------|----------------------------------------------------------------------------------------|
| Amics de la Terra Mallorca (Friends of the Earth Majorca) & Public Educational Centre for Adult Education "CAMP RODÓ | 스페인(발레아레스 제도 - 마요르카) | Transformative education for a better Planet |
|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SBL | 벨기에 | School of Sustainability(SofS) in EYD 2015 and beyond |
| GlobalMatch | worldwide - main branches: 독일과 우간다 | GlobalMatch |
| LATRA | 그리스 | PEACEMAKERS |
| Le Partenariat | 프랑스 | Gaia Center: The active pedagogy at the service of transformative learning |
| Lojtra, association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young people(with partners Officine Cittadine, Sensibiliz'Action and Humanitas), |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 Global education Agora |
| Par Le Monde | 프랑스 | Pelico's Journey, a path towards global citizenship |
| PLAY International | 프랑스 | "Living Together and Social Inclusion" Playdagogy Program |
| Schule im Aufbruch |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 Schools in Transformation |
| Solidarité Ladque, SNUipp, FCPE | 프랑스 | "Children above all!" Stop to the misconceptions about migrants and children migrants" |
| The MY HERO Project | 전 세계 197개국 | MY HERO Media Arts Education Program |
| VVOB - education for development | 벨기에 | eNSPIRED - an international dialogue on equity in education |
| Youth Ambassadors for the UN-Rights of a Child & SDGs, Caritas Vorarlberg AUSTRIA | 오스트리아 | SOLVE IT! Time is running! |

III

2017년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1. 12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2. 20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1. 12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01



기관명

ActionAid Hellas

프로젝트명

**Action Week for Education 2017
: One song, many schools, one world!**

| | |
|-------|------------------------------------------------------------|
| 국가 | 그리스 |
| 주요 활동 | 학교 캠페인 |
| 수혜자 | 난민 아동들의 교육 권리를 주장하는 40,000명의 그리스 학교 학생들 |
| 주제 | 인권, 교육권, 난민 |
| 웹사이트 | education.actionaid.gr/gaw actionaieducation.tumblr.com |

주요내용

‘실천 교육 주간(Action Week for Education)’ 캠페인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학교 연합 캠페인이다. 2017년 캠페인은 ‘난민 아동의 학교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재 그리스에서 아이들의 교육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며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37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2017 Action Week for Education 2017: One song, many schools, one world!’에는 그리스 전역의 700개 학교 40,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마흐디와 세계의 연(Mahdi and the kite of the world)’이라는 뮤지컬 스토리에 감명 받은 학생들이 캠페인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 연을 만들고, 메시지를 적어 날리고, 뮤지컬의 메인 주제곡을 불렀다. 또한, 학생들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며 난민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난민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메시지도 보냈다. 연 형태로 만들어진 메시지는 후에 난민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프랑스 오페라 곡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Action Aid Hellas는 다양한 행사와 난민들의 증언을 추가하여 CD와 예술 작품을 만들어 700여 개 학교와 2,000명의 교육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인권, 난민 위기, 교육권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과 전통 음악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 프로젝트에 수백 개의 학교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참여했다는 면이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음악활동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프로젝트에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이 만든 ‘연’을 모아서 난민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ActionAid’를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이 이루어진 점에서 혁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02

기관명

CARE International Balkans

프로젝트명

Men and Boys as Partner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the Prevention of Youth Extremism and Violence in the Balkans

| | |
|-------|-------------------------------------------------------------------|
| 국가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 주요 활동 | 워크숍, 강의, 캠페인 활동 |
| 수혜자 | 젊은 여성과 남성, 교사, 부모 |
| 주제 | 폭력과 극단주의 예방, 양성평등과 건강한 생활 방식 촉진 |
| 웹사이트 | www.youngmeninitiative.net www.facebook.com/youngmeninitiative |

주요내용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는 청년 NGO 및 정부의 역량을 키워 '청년 프로그램 - 생활기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Program Youth - Life-Skills Educational Curriculum)'을 현 교육 및 청년정책에 접목시키는 한편, 극단주의에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포용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Gender Transformative Life-Skills programme(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생활기능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거둔 과거의 성과들을 더욱 확장해 주류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운동 또는 연맹 결성을 지원하거나, 학부모와 시민들을 양성 평등에 초점을 맞춘 생활기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연합체를 개발하기도 한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파트너 기관의 역량개발, 청년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규범 캠페인 활동, 교사 및 교육가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 개발 등에 투입되는 기존 지원금에 대한 매칭 펀드 형태로 수여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한 성 편견을 인식하게 하고, 성적으로 평등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비폭력적인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폭력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혁신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폭력 및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도구를 찾는 교육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직 교사 및 예비교사 직군인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자원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청소년 폭력 문화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캠페인과 공인된 커리큘럼을 조합하여 이 자료를 교육부에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및 알바니아 등 발칸 지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03

기관명

Future Worlds Center

프로젝트명

Map Your M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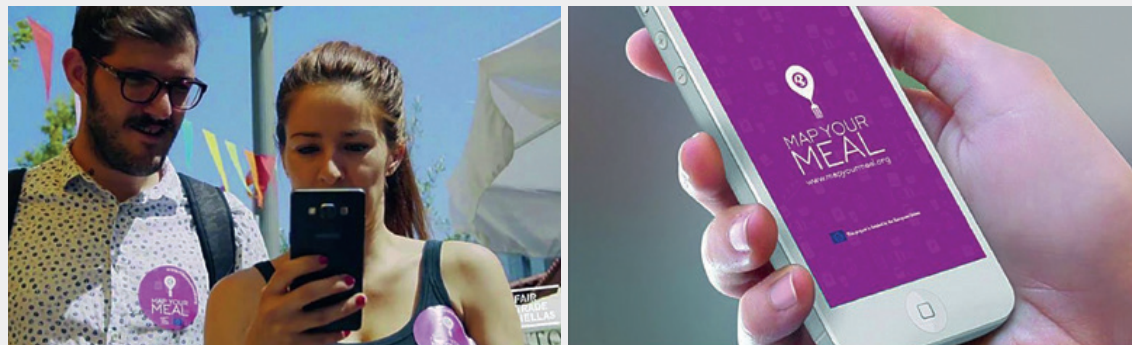
| | |
|-------|---------------------------------------------------------------------|
| 국가 | 사이프러스, 영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독일 |
| 주요 활동 | 모바일 폰 앱, 개발교육 활동(워크숍, 훈련, 토크, 토론회, 영화 등) |
| 수혜자 | 청소년, 개발교육가, 청년 리더, 지역사회 교육가, 일반 대중, 식량 활동가, 지속가능 식량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
| 주제 | 글로벌 식량 시스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 식량 공급 체인, 식량의 친환경화 및 공정화 |
| 웹사이트 | www.mapyourmeal.org www.facebook.com/mapyourmeal |

주요내용

‘Map Your Meal’은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앱으로 식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제품의 ‘친환경’ 및 ‘공정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Map Your Meal’ 앱은 EC의 기금이 지원한 ‘Map Your Meal’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의 글로벌화 및 상호 의존성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친환경 및 공정성 점수뿐만 아니라 노동권, 아동 노동, 회사의 투명성, 동물의 권리, 포장 폐기물 관리, 물 발자국, GMO 및 화학 물질 등의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환경/사회적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되는 정보는 간략하지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제품 원산지를 찾아보거나 제품의 상태 및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제품인지를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글로벌 문제에 대한 사고력, 지식 및 인지도를 일상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 단계로는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앱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며, 관련 평가과정은 사용자 친화적인 클라우드 소싱 기능(2017년 9월 오픈 예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5개 언어(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터키어)로 제공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사이프러스 및 불가리아 시장의 식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04



기관명

프로젝트명

Glopolis

Eat responsibly! Action oriented global learning programme for EYD 2015 and beyond

| | |
|-------|-------------------------------------------------------------------|
| 국가 | 체코 공화국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
| 수혜자 | 학생, 교사, 학부모, NGOs 교육가들 |
| 주제 |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책임감 있는 식량 소비, 빈곤,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 품위 있는 삶, 기후 변화, 환경 파괴 |
| 웹사이트 | www.eatresponsibly.eu www.facebook.com/weeatresponsibly |

주요내용

‘Eat Responsibly!’는 책임 있는 식량소비와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의 식량 생산 및 소비 패턴과 여러 글로벌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아, 빈곤,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천연 자원의 착취와 오염이 식량의 생산, 운송 및 소비 방식에 기인하며, 따라서, 세계 식품 시스템의 관리 문제가 세계 주요 이슈의 핵심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식량 체계 탐구를 토대로 학생, 교사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이 식품 생산의 맥락을 탐구하고 현지상황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를 찾도록 도움을 주고자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유럽 9개국 513개 친환경학교(eco-school)의 학생 539,000명과 교사 27,696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리의 식품 선택과 글로벌 문제 간의 연결성을 탐구했다. 이들은 42,212개 가정을 방문 인터뷰했으며, 76,000명의 학부모들이 책임감 있는 식량 소비에 관한 학교 캠페인에 참여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 글로벌 식량 문제를 67개국 친환경학교의 공식 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컨소시엄 제안서를 만드는 단계로까지 이어졌다. 글로벌 식량 문제는 ‘국제 친환경학교(Eco-Schools International)’의 새로운 주제로 채택되었다.



05

기관명

Centro per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프로젝트명

Storie da Cinema

| | |
|-------|--------------------------------------------------------------------------------------------|
| 국가 | 이탈리아 |
| 주요 활동 | 교육과 인식제고 프로젝트 |
| 수혜자 | 36명의 이주민, 600명의 중등학교 학생, 33명의 교사 |
| 주제 | 개발교육 자원으로서의 이주 |
| 웹사이트 | www.tcic.eu/Static/StorieCinema.aspx(이탈리아어) www.tcic.eu/Static/StorieCinema_en.aspx(영어) |



주요내용

국제협력센터(International Cooperaton Center)는 2011년부터 영화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2015년부터 이주민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토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영화 이야기(Storie da Cinema)'는 이주민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가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교육 자료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소외와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젝트는 이런 관점을 뒤집고 이주가 가진 교육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Stories de Cinema'의 참가하는 이주민들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획된 영화 감상 및 토론 강의를 그들의 교사와 파트너와 함께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주로 학생들과의 토론은 직장 내 차별, 미디어와 인종차별, 고정관념과 편견,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이민 2세대 및 그들의 가치 등 이주민들이 직접 겪은 경험들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며, 이를 영화를 매개로 논의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이주민들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토의하며 영화가 다루는 삶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수업 후 교사들에게 학습 키트를 배포하여, 교사가 추후 학생들과 이 주제의 토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경험, 국가와 문화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증진시켰다. 이주민들이 교실 및 공공 행사에서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되어 영화 기반 학습, 참여 학습 및 또래 학습과 같은 다양한 교수 및 학습 방법론을 혼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민들은 소프트 스킬, 인지도, 현지 언어능력 등을 높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민들이 단지 공공서비스의 수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트렌티노(Trentino) 지역 사회에 분명히 입증해 보이고 있다.



06

기관명

Louvain Coopération

프로젝트명

IngénieuxSud

| | |
|-------|-------------------------------------------------------------------------------------------------------------------|
| 국가 | 벨기에 |
| 주요 활동 | 교육 |
| 수혜자 | 남반구와 북반구의 학생들 |
| 주제 | 현장으로부터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기술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프로젝트, 개발 협력, 책임감, 시스템적인 접근, 헌신, 윤리, 연대, 팀워크, 혁신, 적합한 기술, 과학적 시민성 |
| 웹사이트 | www.ingenieuxsud.be |



주요내용

‘IngénieuxSud’는 한 학년 동안 유럽 학생들(과학자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 바이오 엔지니어, 건축가 및 과학자)이 남반구 지역 대학생들과 협력해서 남반구 지역의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이다. 남반구와 유럽의 학생들은 9월에서 6월 사이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Université catholique de Lovain의 과학자들과 남반부의 대학교,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NGO 또는 민간회사의 직원들의 자문을 받는다. 인적 교류 외에도 유럽 학생들은 지속가능개발, 체계적인 다문화 접근법, 적합한 기술 및 혁신에 관한 강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서 심사를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 앞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발표해야 하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반구 현장에서 남반구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1개월간의 현장 경험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 유럽 학생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적 솔루션을 실제로 실행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후, 자신의 대학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강의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학생 및 과학자들에게 공유한다.

학생들이 실시한 프로젝트로는 저차원적 기술인 야채건조기, 과일 보존시설, 비누 생산시설, 수술실의 전기 공급, 태양 전지 또는 바이오 가스를 통한 전력 생산, 무선 학습상자, 관개, 농업생태학, 종자 선택, 침식방지 재배 등이 진행되었다. 학생, 연구원, 회사 및 과학자들 간의 남반구-북반구 협력은 ‘IngénieuxSud’의 핵심이며, 특히 남반구의 협회, 중소기업, 국제기구, 협동조합은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이다. ‘IngénieuxSud’는 유럽과 남반구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남반구 지역 주민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혁신적이고 적절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학제적 및 체계적 접근 방식은 과학기술 분야와 대학 전반에 큰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07

기관명

Salesian Missionary Voluntary Service - Youth for the World

프로젝트명

Villages of the World - the Global Education Park

| | |
|-------|--------------------------------------------------------------------------------------------------------------------------------------------------------------------------------------------------------------------------------------------------------------------------------------------------------------------------------------------------------------|
| 국가 | 폴란드 |
| 주요 활동 | 워크숍, 슬라이드쇼, 여행자들과의 만남, 가이드 관광 |
| 수혜자 | ‘Villages of the World - the Global Education Park’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다.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연령대는 물론 개발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다(아동, 청년, 학생, 근로자, 은퇴자, 아이가 있는 가족 등). 크라코우(Cracow)에 사는 거주민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폴란드 내 다른 지역이나 그 외 유럽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방문객 그룹들은 모두 각자의 니즈와 지각능력에 따른 맞춤형 활동(워크숍, 슬라이드쇼, 다른 여행자와의 만남, 가이드 관광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 주제 | 개발교육, 글로벌 개발, 지속가능개발목표 |
| 웹사이트 | wioskiswiata.org www.facebook.com/WioskiSwiata |

주요내용

‘세계의 마을 - 글로벌 교육 공원(Villages of the World - the Global Education Park)’는 2009년 2헥타르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각 건물은 세계 각기 다른 지역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 “보고, 만지고, 느껴라(See, Touch, Feel)”라는 공원 사명 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듯 이곳에 오면 멀리 떨어진 세계 각 지역을 직접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며, 각 국가 또는 부족의 일상생활도 느껴볼 수 있다. 공원의 중심부에는 돌로 만든 대형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는 각 국가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표시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가나의 오두막, 파푸아뉴기니의 원두막, 몽골의 유르트, 인도의 티피, 북국의 이글루 등 세계각지의 집들이 지어져 있다. 또한, 건물 내 벽에는 특정지역의 실제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과 교육 자료 현지 예술 작품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현지인들의 옷을 입어볼 수 있다.

체험활동은 생활과 여러 분야의 지식이 혼합된 교육방법들, 프로그램 그리고 워크숍 등과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워크숍 프로그램 내의 혁신적 솔루션, 비정규 교육의 요소를 접목한 방법론, 세계 지도 형태의 공원을 여러 대륙의 주거 형태를 구현한 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등이 방문객들의 상상력을 넓혀준다. 주요 워크숍 주제로는 빈곤, 문화, 전통, 현지의 일상생활, 공정 무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미 또는 아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한 경험자들이므로 ‘Villages of the World’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동, 청년, 성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학교 또는 개별 그룹 및 개인 모두를 위해 교육된 가이드가 운영하는 공원 전체의 여행 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특별 시나리오가 있는 주말 워크숍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워크숍은 게임, 연습, 노래, 춤, 사례 연구 등 참여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이곳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자신이 사는 곳에 그대로 전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 전문성, 잠재력 그리고 꾸준한 개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글로벌 개발에 힘을 보태려는 열의를 갖게 된다. 2017년 기준 약 97개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9,000명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08

기관명

Team Up 2 Teach

프로젝트명

Lifeline Teaching

| | |
|-------|----------------------------------------------------------------------------------|
| 국가 |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
| 주요 활동 |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교육가 간의 수업자료 공동 제작 및 동료 멘토링 |
| 수혜자 | 난민/망명자 및 난민 학생(K-12, 비동반 소아, 성인) 대상 정규 및 비정규 교사 |
| 주제 | 인도주의 단체 및 공교육 학교 시스템 관계자들 간의 협력, 관용과 인식 제고,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문화 간 교류 기회 |
| 웹사이트 | www.teamup2teach.org www.facebook.com/teamup2teach |

주요내용

‘생명줄 학습(Lifeline Teaching)’의 사명은 발칸반도의 교육가들로 구성된 ‘개선공동체네트워크(NIC)’를 만들고, 적응 단계에 있는 망명자와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비정규 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 난민을 위한, 난민에 의한 강의

현장에서 직접 난민들을 가르치는 강사들과 지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업 계획서 및 현장안내서를 발간하고, 위 상황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업계획을 공동으로 작성, 관리, 조정 및 수정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심리, 사회 복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지식 등이 매 강의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동 제작 프로세스는 상향식의 혁신적 자원 개발뿐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제도에 속한 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난민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융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 난민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교사들은 난민교육에 기여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난민캠프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난민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비숙련 교사들에게 교육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숙련된 교사를 파트너로 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난민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난민출신의 교사들은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교육 네트워크와 난민 교육에 초점을 둔 국제 NGO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한다.

(3) 교육자, 자원봉사자 및 난민 커뮤니티 회원을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공동 공간 구축

우리는 학습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이 난민·망명자의 사회 통합을 둘러싼 사고방식을 바꾸고, 인식, 관용, 상호 이해를 향상시키며, 미래 정책 결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음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얻은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담은 교재를 출판하고, 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 공간을 구축하여, 현장에서의 협력과정을 온라인상에서도 재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교육 자원 공동개발, 지식 공유, 의견 수렴 및 관계 구축·유지를 지원하고, 관련 기사, 연구결과 및 사례연구의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원 봉사 모집, 멘토링, 후원 및 재원과도 연결될 수 있다.



09



기관명

World University Service(WUS)

프로젝트명

**Across Boundaries
- Global Learning in Vocational Education**

| | |
|-------|-----------------------------------------------------------------------------------------------------------------------------------------------------------------------------------------------------------|
| 국가 | 독일 |
| 주요 활동 | 자격증 세미나, 직업훈련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워크숍 |
| 수혜자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직업훈련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 |
| 주제 | SDGs, 정의, 세계화, 근로 조건 등 |
| 웹사이트 | www.wusgermany.de/de/auslaenderstudium/grenzenlos www.facebook.com/wusgermany |

주요내용

독일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학생들과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주제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차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 역량을 획득하며,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능력, 공정무역, SDGs에 대한 이해를 습득한다. 제조 (공정)무역, 인증 등의 영역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부가가치를 더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고, 세계화와 연결된 사회적·생태적 기회 및 위험요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 출신의 전문가인 지도 학생들과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대안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시야도 넓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습득하는 다문화 역량은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이유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출신의 대학생들이 직업훈련학교에서 SDGs 및 개발교육과 관련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소외된 계층인 직업훈련학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0

기관명

Xena Centro Scambi e Dinamiche Interculturali(Applicant for the Award) – Italy

프로젝트명

Go Deep!

| | |
|-------|-----------------------------------------------------------------------------------------|
| 국가 | 스페인 Altekio, 스코틀랜드 Diversity Matters, 이탈리아 Comunitazione, 네덜란드와 브라질 Elos Fondation |
| 주요 활동 | 스페인,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
| 수혜자 | 지역사회, 특히 청년 그룹 |
| 주제 | 비정규교육, 퍼실리테이션, 역량강화, 민주주의, 참여적 의사결정 프로그램, '다양성, 힘과 위계, 함께함, 비전, 느낌과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하는 게임 |
| 웹사이트 | godeeproject.wordpress.com www.facebook.com/GoDeepProject |

주요내용

'Go Deep'은 프로세스 기반의 게임을 통해,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일상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의 파트너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협업기관들은 교육, 사회적 변화, 갈등 관리 및 다문화 소통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들이다.

'Go Deep'은 2가지 기존 방법론('Oasis Game'과 'Process work')을 심도 있게 융합시킨 게임으로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단체를 지원하고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GOs, 지방 정부, 인근기업 및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진행되며, 모든 참가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무료로, 완전히 협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안하여, 자원에 대한 인식과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 게임은 유럽연합(EU)의 지원과 광범위한 서포터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개발되었으며 유럽 전역의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다.



11



기관명

YES Akademia(YAKA)

프로젝트명

IMPOWER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YES Akademia(YAKA)’는 과외활동으로 진행되는 교육학적 청소년 권한신장 프로그램이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출신인 대개는 소외계층 출신인 청소년들이다. YAKA의 혁신적인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IMPOWER’는 300시간이 넘는 워크숍으로 국제적 다문화 경험, 사회적 기업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YAKA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개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인식 수준 및 현장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들을 제공한다. |
| 수혜자 | YAKA는 프랑스, 세네갈, 아이티, 니카라과, 인도의 도시 및 시골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지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도구와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
| 주제 | 청소년 역량강화, 연대, 개발교육, 세계시민, 이종문화 간 교류, 비정규 학습, 옹호, 인지 제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
| 웹사이트 | www.yesakademia.org www.facebook.com/yesakademia |

주요내용

YES Akademia(이하, YAKA)는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YAKA의 주요 프로그램은 IMPOWER, Press Start 및 YAKA Switch가 있다.

그 중 IMPOWER는 매년 11월에 시작해 18개월 간 총 300시간의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11월~7월 중순)는 파리 시내 및 근교에서 진행되며 3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개월 반 동안 매주 3시간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2단계(7월 중순~8월 말)에서는 문화적 몰입과 타 문화 간 교류 체험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1단계 프로젝트를 마친 청소년들이 YAKA의 파트너 국가인 인도, 세네갈, 아이티, 니카라과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골 마을에서 1개월 반 동안 체류하게 된다. 해당 파트너 국가에 사는 도시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이들은 시골 마을로 내려오는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까지 건너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9월~5월)에는 10개월 반 동안 청소년 리더들의 지속적 역량 개발 및 기업가적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된다. 이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와 전 세계 간 상호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및 글로벌 공동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가로 성장한다. 이들이 다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 결과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조직적 운동이 생겨나게 된다.

Press Start는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청년 및 전문가 그룹을 모아 2주간의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YAKA Switch는 세네갈, 아이티, 인도, 니카라과 등의 파트너국가 젊은이들에서 IMPOWE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YAKA는 프로그램이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 사이에서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 중 30%가 참가 후 조직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며,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12

기관명

ZIVICA – Centre of Environmental and Ethical Education

프로젝트명

Socratic Institute

| | |
|-------|----------------------------------------------------------------------------------------------------------------------|
| 국가 | 슬로바키아 |
| 주요 활동 | 교육 프로그램 |
| 수혜자 | 매년 20명의 학생들이 워크숍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반 대중도 강의와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6개 슬로바키아 대학의 교수들 및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슬로바키아 전역의 시민들도 참여한다. |
| 주제 | 개발교육, 적극적인 시민성, 경제적 대안, 환경과 윤리적 이슈 |
| 웹사이트 | en.sokratovinstitut.sk www.facebook.com/Sokratovinstitut |



주요내용

‘소크라테스 교육원(Socratic Institute)’은 국가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핵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슬로바키아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NGO, 대학, 후원 기업들이 하나로 모여 탄생한 보기 드문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Socratic Institute’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위한 독창적인 공간으로 다채로운 전문 분야를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지식의 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화형 교육을 통해 실생활의 실용성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데 중점을 둔다.

‘Socratic Institute’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따라 마을, 도시, 학교,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관과 열정을 공유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영감을 주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 정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및 비공식 저녁시간을 함께 가지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개선 및 정의구현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Socratic institute’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슬로바키아의 언덕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을의 오래된 농가 등을 활용한다. 농가는 환경기술 및 천연재료, 친환경적 폐수 처리, 바이오매스 난방 및 태양열 시스템 온수난방, 쓰레기 최소화 및 영속농업 정원으로 재구성 되어 교육 및 지속가능한 자체 개발을 위한 장소로 독특하고 그림 같으며, 영감을 주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배울 것이 권장되며, 모두가 스스로 해결한 문제와 프로젝트를 주제 제한 없이 선택하고 일 년 동안 수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고,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기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삶 안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Socratic Institute’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20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01

기관명

ARPOK, o. p. s.

프로젝트명

Čokoška

| | |
|-------|-------------------------------------------------------------------------------------------------------------------------------------------------------------------------------------------------------------------------------------------------------------------------------------------------------------------------------------------|
| 국가 | 체코 공화국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활동 |
| 수혜자 | <p>아동: 초콜릿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 알게 된다. 공정무역의 개념에 대해 배우고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된다. 팀을 이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선가이자 변화의 동인으로 성장한다.</p> <p>NGO: NGO 활동을 홍보하고 자금을 확보하며 학교 및 민간기업들과 관계를 맺는다.</p> <p>민간 부문: 민간기업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초콜릿 이벤트 참여로 직장 문화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잠재 고객 및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다.</p> <p>공정무역 생산자: 공정무역제품의 소비 증가로 수익이 증대된다.</p> |
| 주제 | 자선활동, 책임감 있는 소비, 공정무역 |
| 웹사이트 | arpok.cz/cokoska |



주요내용

‘Čokoška’는 초콜릿 생산에 있어 생산 과정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교육 프로젝트이다. 한 학년 동안 학생들은 코코아의 재배방식, 초콜릿의 생산방식, 초콜릿 판매수익의 분배방식 등에 대해 배우며, 공정무역의 개념도 학습한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초코팀(choco-team)이란 이름의 팀을 결성하게 되며,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초코팀 활동에 필요한 공정무역 초콜릿이 제공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1년 동안 학생들은 특별한 초콜릿 포장용 준비해 크리스마스 시장, 학교 설명회, 학교 커뮤니티 모임 등의 학교 행사에서 판매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각 팀은 목표 모금액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이해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장기계획 수립 능력 등을 기르게 된다. 판매 수익은 아이들이 후원하기로 한 NGO에 후원자 선물 형태로 전달되며,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위치한 NGO가 선택된다.





02

기관명

Arigatou International, Geneva Office

프로젝트명

Learning to Live Together: Strengthening Teachers Competencies for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Learning in Romania

| | |
|-------|-----------------------------------------------------------------------------------|
| 국가 | 루마니아, 스위스 |
| 주요 활동 | 교사 훈련 및 아동 권한신장 |
| 수혜자 | 아동, 교사, 퍼실리테이터 |
| 주제 | 종교간/문화간 교육, 아동을 위한 윤리 교육, 변혁적 교육학 |
| 웹사이트 | www.ethicseducationforchildren.org www.facebook.com/ethicseducationforchildren |

주요내용

‘함께 사는 것을 학습하기(Learning to Live Together)’는 완전하고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개발을 추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윤리 교육 목적의 문화 간·종교 간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윤리에 대한 새롭고 역동적인 사고방식과 다원적인 글로벌 사회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독려하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적용해 아이들이 윤리적 가치관을 갖도록 만든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고, 타인들과 건설적 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 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프로그램 모듈, 주제 분야, 전환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존중심을 키워 조화로운 태도로 타인과 교류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 내에서 개인 및 집단으로서의 책임감도 갖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권의 개념을 도입해 수직적 관계를 해체하고 아이들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그 결과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학습 환경, 교육 프로세스 및 상호 관계가 형성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문제 및 갈등 상황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임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루마니아 교육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이후로 교사 1,000명 이상, 6~18세 학생 3,000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훈련을 받았다. 루마니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 협력 기관으로는 루마니아의 NGO 단체, ‘Sol Mentis Association’, 유네스코 루마니아위원회 등이 있다.





03

기관명

Bourgogne – Franche – Comté International

프로젝트명

Tandems Solidaires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단위로 지역 당국, 전국 교육계 및 시민사회 등 교육계 핵심 행동단체들이 관여하는 개발교육 시스템을 구축 학생과 지역 NGO들을 연결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 해 동안 협업 활동 진행 교사, NGO, 지역 당국에 개발교육 이슈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무료 과정 시행 ‘Tandems Solidaires’ 프로젝트들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세부 교육 자료 보급 개발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지역 모임 조직 행동단체들이 자신의 영역에 프로젝트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젝트 활동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 제공 ‘Tandems Solidaires’ 시스템이 지역, 국가, 국제 단위로 확장되도록 노력 |
| 수혜자 | 프랑스 내 11곳의 지역 다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유럽 내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 유럽 내 시민사회조직들 지역 당국: 유럽 내 각 기관 및 대표자들 |
| 주제 | 개발교육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설치 |
| 웹사이트 | www.bfc-international.org/-Tandems-Solidaires- |

주요내용

‘Tandems Solidaires’ 프로젝트는 지역 NGO와 학교 교실의 협력을 통해 국내 교육계와 개발교육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 및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이 네트워크는 국내 교육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사들에게 개발교육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200 여개의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6,000명이 넘는 학생들(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이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영역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도전과제는 관계자들(지역 당국, 협회, 학교, 교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프랑스 국내의 새로운 지역 및 해외로까지 프로젝트를 확대 및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04

기관명

Education for Democracy Foundation

프로젝트명

E-globalna in Practice

| | |
|-------|------------------------------------------------------|
| 국가 | 폴란드 |
| 주요 활동 | 교사들에게 수업 시나리오 및 교육 자료와 e러닝 강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구축, 개발, 홍보 |
| 수혜자 | 교사와 기타 교육자들 |
| 주제 | 지속가능한 개발 |
| 웹사이트 | www.e-globalna.edu.pl |

주요내용

‘E-globalna’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글로벌 이슈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개발교육 자료가 담긴 포털이다. ‘E-globalna.edu.pl’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시나리오, 시각 자료 및 기타 교육 자료가 담긴 전자 교과서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만 있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 포털에서 교사들은 세부적인 자료 검색을 통해(교육 수준, 수업 주제, 지역적 중점 사항, 주제 영역, 자료 유형, 출판사 등의 옵션으로 필터링 가능)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양질의 개발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 포털에는 아직 개발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자료들도 담겨 있다. 이 포털은 학교 내 개발교육의 인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05

기관명

Défi Belgique Afrique

프로젝트명

Do It with Africa/Asia

| | |
|-------|----------------------------------------------------------------------|
| 국가 | 벨기에(베냉,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의 파트너들과 협력)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
| 수혜자 | 15~18세의 청소년 |
| 주제 | 개발교육-국제 연대 및 동원 |
| 웹사이트 | www.facebook.com/ongdba |

주요내용

이 프로젝트는 국제 청소년 운동으로 여러 파트너를 하나로 모아 다양한 국가(아프리카 및 유럽 국가)에서 온 청소년들(15~18세)이 개발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10일간의 훈련 이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 과정 동안 참가자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은 물론 자신이 개발 및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게 된다. DBA(Défi Belgique Afrique)와 그 파트너들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표출하거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에 대해 질문도 하고 관련 토론에도 참여한다. 불안정성, 환경적 도전과제, 이주, 다문화성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헌신적인 지역 및 글로벌 시민들과 대면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06

기관명

프로젝트명

Emergency Architecture & Human Rights

Architecture in Movement

| | |
|-------|--------------------------------------------------------------------------------------------------|
| 국가 | 이탈리아 |
| 주요 활동 | 공동학습, 공동제작, 협력을 통한 도시 개선 |
| 수혜자 | 25명의 난민, 62명의 대학생, 21명의 지역주민, 지역 공동체(2,000명) |
| 주제 | 외국인 혐오, 난민의 권한신장, 사회적 다리(social bridge), ETCS-과정, 도시 축제, 협력을 통한 건설, 2개의 구조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건축, 도시 개선 |
| 웹사이트 | ea-hr.org/tibo-and-kori-in-fertilia |

주요내용

일주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신규로 설립된 난민센터 출신의 난민들과 대학 석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도시 퍼틸리아(Fertilia)의 지역 공동체가 퍼틸리아의 공용 공간 개선에 대한 공동학습을 진행한다. 공공 행사 때 100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흙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61.8m 길이의 원형 벤치를 공동으로 설계 및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난민 한 명이 건설 책임자 역할을 맡았고 그가 가진 지식을 활용해 남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전통 아프리카 식 직조 오두막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이곳에 도착한 난민들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건축학과 학생들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07

기관명

Fairtrade Germany

프로젝트명

Fairtrade Campaigns

| | |
|-------|------------------------------------------------------------------------|
| 국가 | 독일 및 전 세계 |
| 주요 활동 | 캠페인 활동 |
| 수혜자 | 글로벌 남반구의 학생, 교사, 시민사회, 도시행정당국, 소규모 생산자와 근로자 |
| 주제 | 공정무역, 환경, 기후변화,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지역의 권한신장 |
| 웹사이트 | www.fairtrade-deutschland.de www.facebook.com/fairtrade.deutschland |

주요내용

‘공정무역(Fairtrade)’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73개국 160만 명이 넘는 생산자와 그 가족을 돕는 글로벌 운동이다. 공정무역 시스템에서는 최종 생산물 가치의 50%가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본 프로젝트의 비전은 모든 생산자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이아말로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 개발 확대의 근본적인 추진 요인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무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현재의 기준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캠페인을 돕기 위해, 공정무역은 공동체, 학교, 대학 단위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무역 마을, 학교, 대학이라는 3가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생산자의 배경 스토리를 지역 사회에 전달하고, 공정무역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글로벌(global)’ 캠페인이다.



08



기관명

Felcos Umbria – Fund of Local Authorities for Decentralized Cooperation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프로젝트명

Don't waste our future! Building a European youth alliance against food waste

| | |
|--------------|----------------------------------------------------------------------------------------------------------------------------------------------------------------------------------------------------------------------------------------------------------------------------------------------------------------------------------------------|
| 국가 | 이탈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스페인 |
|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소비, 폐기물, 지속가능성, 권리에 대해 학습 • 기술 코칭, 콘텐츠와 방법론 공유, 학습 활동 • 식품 폐기물 및 폐기물 저감에 대한 지역 단위 워크숍을 지역 당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 지역 및 글로벌 단위로 식품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우선순위와 아이디어 파악 •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 책임감 있는 지속가능 행동의 가치와 실천 방법에 대해 토론 • 학생들이 식품 폐기물에 관한 워크숍을 조직 |
| 수혜자 | 학생, 교사 및 지역 당국(유럽 7개국 4,000명의 초/중등학교 학생과 9개 지역 55개 지역당국 소속 113명의 대표자) |
| 주제 | 식량권, 식품 폐기물 저감, 기후 변화, 인권, 적극적 시민 |
| 웹사이트 | www.felcos.it www.facebook.com/FELCOSUmbria |

주요내용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식품 폐기물, 책임감 있는 소비 그리고 세계 식량권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높여, 이들이 책임감 있는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 당국과 일부 공공 및 민간 부문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식품 폐기물 문제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담당하는 분야는 물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글로벌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 당국 대표자들은 함께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한 유럽 동맹을 결성했고 'THE DON'T WASTE OUR FUTURE CHARTER 2015 - 식품 폐기물 감축과 세계식량권 촉진을 위한 유럽 청년과 지역 당국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동맹의 출범을 알렸다. 청년들과 이들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참여한 결과, 현지에서 그리고 7개 유럽 국가에서 8개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7개국은 이탈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페인이다.



09

기관명

Finn Church Aid

프로젝트명

Teachers Without Borders Finland

| | |
|-------|---------------------------------------------------------------------------------------------------------------------------------------------------------------------------------------|
| 국가 | 핀란드에서 협조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분야 교사 및 교육전문가의 자원봉사 |
| 수혜자 | 핀란드, FCA 프로그램 국가, 핀란드의 교사와 학교, FCA 프로그램 국가의 교사와 학교 |
| 주제 | 양질의 교육을 지원 |
| 웹사이트 | www.opettajatilmanrajoja.fi/en www.facebook.com/Opettajatilanrajoja |



주요내용

‘국경없는 교사회(Teachers Without Borders, TWB)’는 핀란드의 개발교육과 개도국 현지 교사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사 및 교육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이다.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와 교사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성공을 이룬 핀란드의 사례를 활용한다. 핀란드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핀란드의 개발교육에 참여해 핀란드의 교육 전문가들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글로벌 남반구의 교육 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TWB는 핀란드의 교육 전문가들(국가교육청, 교육 및 외무부, 교사노조, 교사훈련기관/헬싱키 대학교, 다양한 개발 협력 NGO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운영위원회는 토론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TWB 네트워크는 1,700명이 넘는 핀란드의 교사들, 교육 전문가들 및 TWB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핀란드 전역에 걸쳐 구축되어 있다.



10

기관명

Forum for Equitable Development / Forum za enakopraven razvoj – FER

프로젝트명

Escape and Flight

| | |
|-------|-----------------------------------------------------------------------------------------------------------------------------------------------------------------|
| 국가 | 슬로베니아 |
| 주요 활동 | 야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탈출 게임 |
| 수혜자 | 청년 |
| 주제 | 난민, 도피 |
| 웹사이트 | www.forumfer.org/projects.html www.facebook.com/forumfer |

주요내용

‘공정한 개발을 위한 포럼(Forum for Equitable Development, FER)’은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슬로베니아 청년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실외 게임을 개발했다. 이 게임을 통해 청년들은 난민들이 겪는 참혹한 일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난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존재’에서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사용된다. 1) ‘인식 가능 희생자 효과(identified victim effect)’: 다수의 사람이 대상일 때보다 특정한 한 사람이 대상일 때가 공감하기 쉽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 난민을 바라보는 긍정적 정서가 자극된다. 2) ‘게임화(gamification)’ 접근법: 게임이 아닌 현실 속에서 게임의 규칙과 요소들이 사용된다. 1시간 반 동안의 게임 과정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류블라냐를 향해가는 실제 난민의 탈출 과정을 바탕으로 한 실외 ‘방탈출’ 게임이다. 게임 속에서 탈출에 성공한 청년은 남수단에서 온 실제 청년 난민의 증언을 듣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체험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토론이 시작되며, 이것이 청년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11

기관명

GEOMOUN NGO

프로젝트명

Le Son d' Enfants - The Sound of Children

| | |
|-------|------------------------------------------------------------------------|
| 국가 | 벨기에와 남반구 파트너 국가들(베냉, 토고, 아이티) |
| 주요 활동 | 아동의 권리 |
| 수혜자 | 10~12세 아동 |
| 주제 | 시민성 |
| 웹사이트 | www.lesondenfants.be www.facebook.com/Geomoun-as-bl-107567922646168 |

주요내용

아동을 변화의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의 소리(THE SOUND OF CHILDREN, the radio show of committed children)'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독려한다. 10~12세 학생들은 다른 나라(벨기에, 토고, 베냉, 아이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주제(세계시민)를 선택한 후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자료를 읽고 함께 토론하며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도 갖는다. 초소형 녹음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아이들은 상대 국가 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다. 예를 들면, "너희 나라 학교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니?" "너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니?" 등의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는 아이들이 직접 꾸미는 라디오 생방송이다.



12

기관명

Humanitas – Centre for Global Learning and Cooperation

프로젝트명

Through the Refugee's Eyes

| | |
|-------|-----------------------------------------------------------|
| 국가 | 슬로베니아 |
| 주요 활동 | 대화형 워크숍, 체험형 연극, 지역 행동 |
| 수혜자 | 청소년, 교사, NGO |
| 주제 |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 이주, 환경 및 사회적 정의, 연대 |
| 웹사이트 | www.humanitas.si www.facebook.com/pg/humanitas.drustvo |



주요내용

‘난민의 시선에서(Through the Refugee’s Eyes)’는 발칸반도에서 벌어지는 난민에 대한 부끄러운 처우, 난민에 대한 편파적 발언과 편협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사용되는 시각 자료와 체험형 연극을 통해 난민들이 처한 운명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되고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이야기 속 실존 인물들을 만나기까지 한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대해 반문하고 숙고하며, 마침내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실제 난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공동 설계에 참여해 자신만의 생생한 경험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타 문화 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미디어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수는 50만 명 이상이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EU(S.A.M.E. World)와 슬로베니아 정부 커뮤니케이션실에서 후원한다.



13

기관명

**Oxfam Italy, CARDET, University of Lodz,
Jaunimo Karjerosn Centras, Oxfam GB**

프로젝트명

Future Youth Schools Forums

| | |
|-------|----------------------------------|
| 국가 | 이탈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영국 |
| 주요 활동 |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교내 포럼을 이끌어 감 |
| 수혜자 | 이탈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영국의 학교들 |
| 주제 | 양성 평등, 도피를 강요받는 사람들 |
| 웹사이트 | fys-forums.eu/en/ |

주요내용

‘미래청소년학교포럼(Future Youth Schools Forums, FYS-Forums)’은 여러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학교 주도의 세계 시민 청소년 포럼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FYS-Forums’는 학문, 교육, 글로벌 및 청소년 관련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포럼은 기존의 접근법을 따라 글로벌 청소년 포럼의 형태를 취한다. 본질적으로 비정규 과정인 이러한 청소년 포럼들은 포럼의 모델을 정규 교육에 적용하거나 보다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수한 비정규 청소년 포럼 운영 원칙을 접목시키는 데도 보다 용이하다. 그 결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면서(유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동시에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14



기관명

Par – Respostas Sociais, Associação Renovar a Mouraria, Instituto Marquês de Valle Flôr

프로젝트명

Coordenadas para a Cidadania Global / Coordinates for Global Citizenship

| | |
|-------|--------------------------------------------------------------------------------------------------------------------------------------------------------------------------------------------------------------------------------------------------------------------------------------------------------------------------------------------------------------------------------------------------------------------------------------------------------------------------|
| 국가 | 포르투갈 |
|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활동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분기별 온라인 잡지 제작. 이 잡지는 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친구들'에게 공유된다. • 개발교육 훈련 과정으로 'Lisbon in the World and the World within Lisbon'을 개발. 개인의 능력, 직업적 역량 및 GCE 역량의 개발 • 리스본에서 진행되는 'Market of Tours for Global Citizenship'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 '새로운' 리스본을 발견하고 글로벌 시각으로 현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Coordenadas' 프로젝트의 경로를 상세히 기술한 'Guide for Social Transformation' 제작 |
| 수혜자 |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청년 및 성인 대표자, 청년 협회, 지역 정부 및 여행사. 포르투갈 시민들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리스본의 세계시민 투어에 참여. |
| 주제 | 세계시민, 글로벌 개입, 지속가능한 관광 |
| 웹사이트 | www.coordenadas.pt |

주요내용

'세계시민 좌표(Coordenadas para a Cidadania Global / Coordinates for Global Citizenship)'는 리스본 내 3곳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리스본에서 교육 목적으로 관광 루트를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개발교육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통해 시민사회, 청년 협회, 지역 정부, 여행사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관광 루트들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리스본을 발견하고 글로벌 시각으로 현지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지역 사회와 관련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을 불러 일으킨다. 이 프로젝트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현지와 글로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한편, 세계와 연결된 도시 리스본에서 그러한 연결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가운데 전환적이고 긍정적 태도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이 프로젝트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기관명

Peipsi Center for Transboundary Cooperation

프로젝트명

SAME World/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programme in schools

| | |
|-------|---------------------------------------------------------------|
| 국가 | 에스토니아 |
| 주요 활동 | 실습/글로벌 개발교육 |
| 수혜자 | 남부 에스토니아의 5개 학교(6~7학년) |
| 주제 | 글로벌 개발교육,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 |
| 웹사이트 | www.ctc.ee, www.sameworld.eu www.facebook.com/peipsicenter |



주요내용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Climat change and sustainable agriculture)’는 2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2개월간 학생들은 씨앗(완두콩, 콩, 메밀 등)을 심을 수 있는 항아리에 물을 주게 되는데, 이 때 천연 영양분을 혼합한 것과 화학 비료 또는 수돗물 중 한 가지를 같이 주라는 지침을 받는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 아이들은 식물의 성장 정도와 식물 속 당 함량을 측정한다(굴절계 사용). 또한 농부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면서 이 지역의 농업 생산에 관한 단기 연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워크숍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실험이 조합된 독창적 프로그램이다. 곡물을 키우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그 내용을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참가자들의 노력은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16

기관명

Pontis Foundation

프로젝트명

Sote ICT

| | |
|-------|-------------------------------------------------------------|
| 국가 | 슬로바키아와 케냐 |
| 주요 활동 | Sote ICT 학교 동아리, 학생 연수 기업, 국제 대회, 연구 여행, 영상회의 등의 지원 |
| 수혜자 | 케냐의 시골 및 소도시에서 사는 중등학교 학생들, 직업학교 및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다니는 슬로바키아 학생들 |
| 웹사이트 | sotehub.com www.facebook.com/SoteHub |

주요내용

‘Pontis Foundation’이 진행하는 ‘Sote ICT’ 프로젝트와 ‘Sote Hub’는 현재까지 케냐의 타이타 타베타 카운티(Taita Taveta County) 소재 중등학교 12곳을 슬로바키아 및 41개 ‘실습기업 네트워크(PEN)’ 회원국 내 학교들과 연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들을 슬로바키아와 케냐의 창업 생태계와도 연결시키고 있다. 학생 실습 기업들의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졸업생들이 ‘Sote Hub’에서 실제 기업을 인큐베이팅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등학교에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Sote ICT’는 풀스택(full stack)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IT 장비 기부, 교사 및 멘토 훈련, ‘Sote ICT Club’ 및 실습 기업 설립에서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겨루는 국제 대회의 진행, 공동 비디오 컨퍼런스 주최를 포함한다. 나아가, 보이(Voi) 마을의 ‘Sote Hub’에 수료생들이 세운 실제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초기투자금(Seed Money) 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17



기관명

Salesian Association of Don Bosco

프로젝트명

Today, I eat as a...

| | |
|-------|------------------------------------------------------|
| 국가 | 체코 공화국 |
| 주요 활동 | 그룹 퍼실리테이션,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에 대한 시뮬레이션 |
| 수혜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비정규 교육 그룹, 개도국 아동, 교사, 강사 |
| 주제 | 음식, 개도국 아이들의 삶, 문화 |
| 웹사이트 | www.dnesjimjako.cz www.facebook.com/dnes.jim.jako |

주요내용

‘Today, I eat as a...(개도국 생활 체험)’ 프로젝트의 목적은 체코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파트너국 학생들의 삶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체험의 핵심은 해당 국가(인도, 잠비아, 방글라데시, 콩고 등)에서 흔히 먹는 일반적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사는 보통 대단히 소박한 경우가 많고 재료비 또한 체코식 식사 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 절약한 돈은 해당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비로 사용한다. 교사나 강사들에게는 우리의 방법론을 담은 유인물과 연습 문제지, 그리고 영상, 게임, 사진, 이야기 글, 조리법 등 여러 자료들을 함께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고전적인 학습법 대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며, 학습 과정은 실험 위주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큰 장점은 파트너국에서 살아보고 일 해본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18



기관명

The National College of Art and Design(NCAD)

프로젝트명

The Change Lab; re-conceptualising art and design education through the tripartite lens of the artist, teacher - activist

| | |
|-------|--------------------------------------------------------------------------------------------------------------------------------------------------------------------|
| 국가 | 아일랜드 |
|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fessional Master of Education(PME)' 프로그램 중 'Global Education Module The Change Lab' • 미술관 행사 및 전시 |
| 수혜자 | 학생 미술 교사, 중고등 과정 학생, 교육가, NGO |
| 주제 | 땅과 집(land and home)이라는 대주제, 국내 난민, 이주, 노숙자, 소비지상주의, 행동주의, 글로벌 물 위기 |
| 웹사이트 | www.ubuntu.ie twitter.com/ChangelabNCAD |

주요내용

'변화 연구소(The Change Lab)' 프로젝트는 개발교육이 '국립미술디자인 대학(NCAD)'의 'Professional Master of Education(PME: 교육전문가)' 1년차 프로그램의 핵심 교육과정으로 되도록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다. 'The Change Lab' 프로젝트의 주 목표는 교내 미술 및 디자인 커리큘럼을 개발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개발교육 활동은 'Ubuntu Network'와 'Irish Aid'의 지원 및 자금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과정에서 학생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한 미술을 하고 또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The Change Lab'에서 열리는 전시는 교육학적 접근법을 소개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학생 미술 교사들이 땅과 집(land and hom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공예품들도 전시한다. 5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동안 교사들은 NCAD의 'Gallery Space (미술관)'에서 일하며 사회적 평론가로서 미술의 잠재력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교육은 강력한 변화의 요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고, 사회적 불의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들을 식별케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게 한다. 'The Change Lab'은 아일랜드에 현재의 커리큘럼에 대한 개혁 담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PME 과정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이 변화의 동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을 예술가와 교사 및 운동가라는 3각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19

기관명

프로젝트명

Trias

The potato as catalyst for innovative global education and multi-stakeholder involvement - in Belgium and in Peru

| | |
|-------|--------------------------------------------------|
| 국가 | 벨기에, 에콰도르, 페루 |
| 주요 활동 | 국제 교류 및 상호 학습 |
| 수혜자 | 에콰도르와 페루의 감자 농부들, 벨기에의 학생들과 감자 산업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 |
| 주제 | 지속가능한 농업 |
| 웹사이트 | www.trias.ngo www.facebook.com/GIPvrieskamer/ |

주요내용

남미는 감자의 주산지로서 페루 안데스 산맥의 한 자락에는 감자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규모 감자 농가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땅, 물, 자금,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연합해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벨기에의 지방 중 하나인 서 플랑드르(West-Flanders)에서는 감자가 이 지역 경제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Trias'는 감자 농가에 지원을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연합으로 현지 기술학교 학생들은 농가를 위한 몇 가지 기계의 설계도 초안을 마련해 이 지방 전체에 멘텀을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는 현지 거주민, 관계당국, 민간부문, 언론 등도 모두 참여했다.



20

기관명

프로젝트명

UdiGitalEdu / University of Girona

Inventors4Change

| | |
|-------|--------------------------------------------------------------------------------------|
| 국가 | 스페인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제작자 교육, 가상공간을 통한 교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에듀테크 |
| 수혜자 | 초중등 학교(스페인, 인도, 콜롬비아) |
| 주제 | 지속가능개발목표, 글로벌-로컬 도전과제(글로벌) |
| 웹사이트 | www.inventors4change.org, globalchangemakers.eu www.facebook.com/inventors4change |

주요내용

‘Inventors4Change’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팀워크 촉진을 목적으로 과학, 기술, 예술 융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에 전념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인 ‘UdiGitalEdu’에서 만든 프로젝트이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아동을 지원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Inventors4Change’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 기법, 지식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협력학습을 통한 발명과 문화 간 교류를 장려하는 여러 나라(스페인, 인도, 콜롬비아) 학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서로 다른 국적의 아이들이 가상공간상에서 팀을 이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디지털 스토리를 공동창작 및 코딩하는 법을 배우고 그 스토리를 인터넷상에서 게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내에서 ‘InventEUs’라는 이름으로 복제되어 시행되고 있다.



IV

2018년

GENE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1. 7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2. 13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1. 7개의 최종 수상 프로젝트

01

기관명

**Centre de Recherche et d'Information
pour le Développement - CRID**

프로젝트명

**The Festival des Solidarités, acting togeth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실습/글로벌 개발교육 |
| 수혜자 | 공공장소 이벤트, 연극, 인식 게임, 토론, 전시, 공유 식사, 연대 시장, 콘서트, 댄스 쇼 |
| 주제 | 지속가능 개발 및 인권과 관련된 모든 주제 |
| 웹사이트 | www.festivaldessoridarites.org www.facebook.com/festivaldessoridarites |

주요내용

‘연대 축제(The Festival des Solidarités)’는 20년이 넘도록 연대 강화를 위한 프랑스의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으며, 해외 방문객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매년 11월이 되면, 협회, 지역 당국, 학교, 사회문화 단체, 경제 주체, 시민 단체 등에서 흥겨운 행사를 4,200회 넘게 개최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공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이유는 개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사로 기획하기 때문이다. 행사에서는 ‘The Festival des Solidarités’라는 공통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주제, 행사 종류, 관객에 맞춰 진행된다. 행사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환경, 이주, 금융, 식량, 무역,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등 해당 지역 및 국제적 연대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이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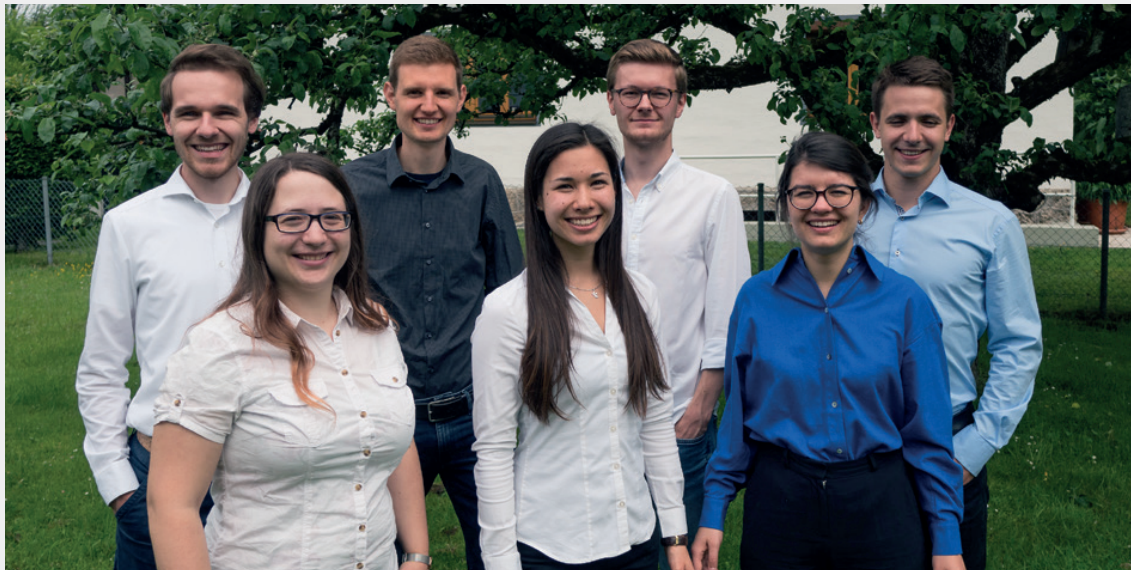
기관명

CHANGE – Chancen Nachhaltig Gestalten e.V.

프로젝트명

WeltFAIRsteher

| | |
|-------|----------------------------------------------------------|
| 국가 | 독일 |
| 주요 활동 |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 |
| 수혜자 | 학생 |
| 주제 | 지속가능한 개발 |
| 웹사이트 | www.weltfairsteher.de www.facebook.com/weltfairsteher |



주요내용

‘해수면이 올라가면 베니스 같은 도시는 사라지게 될까?’ ‘내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샴푸의 성분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WeltFAIRsteher’이다.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인 ‘WeltFAIRsteher’는 2016년부터 독일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은 에너지와 모빌리티, 영양, 기후 변화, 생산과 소비, 사회적 책임, 물과 자원(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유사) 등이며, 50개 이상의 도전과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도전과제들은 참가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접근법 및 해법을 구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다. 한 학급이 도전과제 하나를 끝낼 때마다 점수가 부여되며,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해당 학급에 상이 수여된다.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독일의 학교 커리큘럼에 지속가능개발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03

기관명

Global Action Plan UK

프로젝트명

Water Explorer

| | |
|------|---------------------------------------------------------------|
| 국가 |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몰타,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버뮤다 |
| 수혜자 | 12개국 3,600개 학교의 180,000명의 학생들 |
| 주제 | 물과 환경 이슈, UN SDGs, 교육과 행동,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 |
| 웹사이트 | www.waterexplorer.org www.facebook.com/WaterExplorerUK |

주요내용

‘물 탐험가(Water Explorer)’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는 웹 기반 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8~14세 학생들이 참여해 물 관련 이슈를 학습한 다음 직접 실천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물 관련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수업 계획과 자료, 도전과제들을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Water Explorer’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되며, 그 결과물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2015년 프로그램 출범 이후로 12개국에서 3,5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어린 Water Explorer(물 탐험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결된 물 관련 행동을 촉구하는 수천가지 도전과제들도 완수했다. 이 아이들의 노력으로 무려 1,050만 m3의 물과 21,555 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었고, 28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는 데도 기여했다. 프로그램 시행 5년째를 맞는 2018/19년에는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몰타,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04

기관명

Humanitas – Centre for Global Learning and Cooperation

프로젝트명

Club of Global Education Teachers

| | |
|-------|-------------------------------|
| 국가 | 슬로베니아 |
| 주요 활동 | 격월 미팅, 워크숍, 멘토링 |
| 수혜자 | 교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 |
| 주제 | 모든 개발교육 관련 주제들 |
| 웹사이트 | www.humanitas.si |

주요내용

‘개발교육 교사 클럽(Club of Global Education Teachers)’은 교사들이 보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생각을 공유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탄생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법을 배우는 한편 교육법의 개발에도 참여하며 교육가로 성장해 간다. 개발교육 NGO를 비롯해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보다 포용적이고, 창의적이고, 전환적인 교육과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체제 변화를 실현하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Club of Global Education Teachers’는 운영 첫 해에 슬로베니아 전역에 걸쳐 5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했으며, 평균 25명의 교사들이 격월로 미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클럽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훌륭한 개발교육을 널리 확대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05



기관명

NaZemi

프로젝트명

Scouts and Guides: Active Global Citizens

| | |
|-------|-------------------------------------------------------------------------------------------|
| 국가 | 체코 공화국 |
| 주요 활동 | 개발교육 워크숍, 세미나, 캠프, 교육 도구 |
| 수혜자 | Scouts and Guides(스카우트와 가이드) |
| 주제 | 글로벌 상호의존성, 평등, 지속가능성, 비판적 사고 |
| 웹사이트 | www.globalscouting.eu www.facebook.com/groups/scouts.and.guides.active.global.citizens |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카우트와 가이드들(Scouts and Guides)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 평등, 정의 개선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카우트와 가이드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NGO와 스카우트 가이드(Scouts and Guides)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고, 그 덕분에 스카우트 조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우리는 개인 접근법(personal approach)을 활용해 139,000명의 스카우트와 가이드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2,800개 이상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스카우트 개발교육(Scout Global Education) 전문가들이 활동한 세미나의 수는 230개가 넘고 교육을 수료한 스카우트 및 가이드 리더의 수는 4,218명이 넘는다. 또한, 교육가들과 모든 스카우트 리더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시민 역량(Global Citizenship Competences)', '글로벌 나침반(Global Compass)글로벌 나침반' 웹 페이지, '스카우트와 가이드: 적극적인 세계시민(Scouts and Guides: Active Global Citizens)' 간행물, '정보에 기초한 행동 방법(Methodologies of Informed Actions) 브로셔' 등을 개발하였다.





06

기관명

프로젝트명

People in Need Slovakia

World between the Lines

| | |
|-------|--------------------------------------------------------------------------------------------------|
| 국가 | 슬로바키아 |
| 주요 활동 | 미래 언론인을 위한 대학 글로벌 개발교육 프로그램 |
| 수혜자 | 미래 언론인, 숙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보도국, 비정규 교육 등 글로벌 개발범위 확대의 수혜를 받는 일반 대중, 미래 언론인을 알아 둘 기회를 갖게 되는 전문가와 NGO |
| 주제 | 글로벌 이슈와 세계의 불균형적 권력 구조에 방점을 두는 글로벌 개발 저널리즘 |
| 웹사이트 | www.svetmedziriadkami.sk and www.hnonline.sk/globalne www.facebook.com/svetmedziriadkami |

주요내용

세계화로 인해 더 이상 뉴스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경계 사이의 세계(World between the Lines)’ 프로그램은 글로벌 개발 저널리즘(Global Development Journalism)이라 불리는 접근법을 통해 뉴스의 경계를 없애는 한편, 국내와 국외의 구분 없이 인도주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에 집중한다. 또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한다.

본 프로젝트는 두 곳의 대학 언론학과 및 슬로바키아 최대의 언론사 한 곳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특화된 ‘HN Globálne’라는 특별 뉴스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언론 기관들과 협업해 그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미디어 특집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고, 자신의 태도, 고정관념, 선입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도록 한다.





07

기관명

WorldWise Global Schools

프로젝트명

Global Passport Award

| | |
|-------|-----------------------------------------------------------------------------|
| 국가 | 아일랜드 |
| 주요 활동 | 워크숍, 커리큘럼 자료, 교사 훈련, 'Global Passport(글로벌 여권)' 가이드, 웹사이트, 학교 방문, 연례 학생 컨퍼런스 |
| 수혜자 | 전체 학교 공동체, 학교 수장 및 운영진, 교사, 학생, NGO,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
| 주제 | 개발교육에 대한 전체 학교 접근법. 학교들은 책임감 있는 소비, 기후 정의, 양성 평등, 식량 안보 등의 다양한 주제에 집중. |
| 웹사이트 | www.worldwiseschools.ie www.facebook.com/WorldwiseGlobalSchools |

주요내용

‘글로벌 여권 어워드(Global Passport Award)’은 개발교육에 대한 품질 인증 프로젝트로, 개발교육을 학교생활 전반에 접목시키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발교육이 왜 전체 학교(whole-school) 접근법에 알맞은 방식인지 보여줄 뿐 아니라, 커리큘럼에서 학교 정책 및 기풍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개발교육을 접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계별 가이드도 제공한다. ‘Global Passport Award’는 개발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의 모든 중등학교에 개방되어 있다. 학교는 자신의 개발교육 활동 수준을 6가지 카테고리(여권 ‘스탬프’)로 평가한다. 각 여권 스탬프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면을 대표하며, 6개 스탬프에서 획득한 총 점수로 3가지 여권 종류 중 어떤 것이 수여될지를 결정 후 봄에 열리는 연례 학생 컨퍼런스에서 상을 수여한다.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여권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여권(Citizen's Passport) - 개발교육 참여 초기 단계
- 외교관 여권(Diplomat Passport) - 개발교육 참여 중기 단계
- 특별 여권(Special Passport) - 개발교육 참여 최고 단계

2015년 이후 150개가 넘는 학교들이 ‘Global Passport Award’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았다. 웹사이트를 통해 각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orldWise Global Schools’은 ‘Global Passport’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Global Passpor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래와 같다.

- 학생들이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연구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 제공
- 학교에 외부 감사를 득한 개발교육 인증 부여
- 학교에서 진행되는 개발교육에 대한 확인 및 인정의 기회
- 개발교육 측면에서 학교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기회



2. 13개의 우수 선정 프로젝트

01

기관명

Amics de la Terra Mallorca - Friends of the Earth Majorca(NGO) & Public Educational Centre for Adult Education 'CAMP RODÓ'(school)

프로젝트명

Transformative Education for a Better Planet

| | |
|-------|-------------------------------------------------------------------------------------|
| 국가 | 스페인(발레아레스 제도 - 마요르카) |
| 주요 활동 | 환경 이슈를 다루는 워크숍과 교육 센터의 '대중 교육'을 통한 대중들의 참여 |
| 수혜자 | 학생, 교사,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두 기관 모두(학교와 NGO)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및 NGO Amics de la Terra의 자원봉사자들과 회원들 |
| 주제 | 기후 변화와 이것이 스페인 및 화석연료를 캐는 국가들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 웹사이트 | www.amicsdelaterra.org www.facebook.com/amicsdelaterra |

주요내용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전환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 for a Better Planet)'은 환경 NGO와 파트너 학교가 구상하여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후 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가 스페인 및 화석연료 채굴 국가들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지역 단위 활동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학생들은 몇 가지 간단한 지침에 따라 가사를 쓰고, 영상 클립에 어울릴 이미지를 고르고,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등 스스로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그 결과 친구와 가족들도 학생들의 영상 제작에 참여해 도움을 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성인교육센터의 3개 학급(학생 연령 17~75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학생들 중 일부는 학습 관련 문제 또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들은 돈독한 집단적 화합과 단결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책임감 있는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02

기관명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SBL

프로젝트명

School of Sustainability(SofS) in EYD 2015 and beyond

| | |
|--------------|------------------------------------------------------------------------------------------------------------------------------------------------------------------------------------------------------------------------|
|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 주요 활동 | 여름 캠프, 활동을 통한 학습, 세미나, 실천적 워크숍; 축제, 사진 전시, 청소, 단합대회, 가두 활동 등의 광범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 |
| 수혜자 | 불공정한 환경 및 사회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집단, 운동가, 기타 CSO, 비정규 교육자(청년 리더, 지역 사회, 성인, 노조 교육자들 등), 청년(25세 미만, 외부 정규 교육), 환경 이슈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우간다의 관련 협회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정의 및 에너지 이슈와의 관련성 • 식량, 농업, 생물다양성 • 경제적 정의, 채굴 산업과 국제 교육 포함 • 전 세계 천연자원 사용 및 소비 측면에서 유럽의 적정 비중 • 지역 사회 조직 • 권력과 특권 |
| 웹사이트 | foeeurope.org/school-of-sustainability, virtual.foei.org/trainings www.facebook.com/FoEEurope |

주요내용

‘지속가능성 학교(School of Sustainability, SofS)’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Friends of the Earth’에 속한 우리의 동반자들(compañeros and compañera)이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학교(School of Sustainability, SofS)”를 운영하며 터득한 경험을 반영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대중적인 환경 교육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교육들은 유럽 대륙의 각 지역 사회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그러한 지역 프로그램들에도 이 같은 환경 교육이 반영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학교(School of Sustainability, SofS)’는 대중 교육, 글로벌 관점, 시스템 분석, 로컬 및 글로벌 공동체와 사회의 전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학교(School of Sustainability, SofS)’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이슈, 특히 환경 정의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표적집단으로 하여금 지역, 국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대중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03

기관명

GlobalMatch

프로젝트명

GlobalMatch

| | |
|-------|------------------------------------------------------------------------|
| 국가 | 전 세계(주 거점: 독일과 우간다) |
| 주요 활동 | 10단계 온라인 프로그램 + 워크숍과 훈련 |
| 수혜자 | 청년 |
| 주제 | 눈높이 파트너십, 비판적 백인성(critical whiteness), 권한 신장, 인종차별 반대, 프로젝트 개발, 디자인 사고 |
| 웹사이트 | www.globalmatch.me www.facebook.com/GlobalMatch.me |

주요내용

‘GlobalMatch’의 비전은 전 세계 청년들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받으며,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로부터 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식민지 독립 이후에 생겨난 인식이라 할 수 있는 “‘행동가는 ‘글로벌 북반구(Global North)’에만 존재하고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사람들은 그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들’과 ‘우리’로 나누는 이분법이 전통적인 개발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GlobalMatch’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시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협동적 크리에이터 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04

기관명

LATRA

프로젝트명

PEACEMAKERS

| | |
|-------|----------------------------------------------|
| 국가 | 그리스 |
| 주요 활동 | 워크숍 |
| 수혜자 | 난민 아동과 보호자가 없는 소아 |
| 주제 | STEM, 디지털 역량, 21세기 역량 |
| 웹사이트 | www.latra.gr www.facebook.com/LATRALESVOS |

주요내용

'PEACEMAKERS'는 레스보스 섬 난민 캠프에 위치한 교육센터로 혁신적인 STEM 교육을 실시한다. 이 센터는 그리스 외딴 곳에 위치한 레스보스 섬 내 소외된 수용시설에 머무는 난민 아동들과 비동반 소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미래 대비를 위한 기본 소양인 STEM 교육과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TRANSFORMATIVE LEARNING(전환학습)'을 통해 난민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량은 물론 21세기 난민 공동체가 처한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혁신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외딴 섬의 난민 공동체에 접목시켰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21세기 개발교육을 실시해 난민들이 미래 대비를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5

기관명

프로젝트명

Le Partenariat

Gaïa Center: The active pedagogy at the service of transformative learning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몰입형 역할극(immersive role play), 훈련, 교육적 도구 개발 |
| 수혜자 | 학생, 교사 |
| 주제 | 상호문화성, 지속가능한 개발, 비판적 사고의 발달 |
| 웹사이트 | www.lepartenariat.org/fr www.facebook.com/CentreGaia |

주요내용

‘가이아 센터(Gaia Center)’는 30년 넘게 국제협력 분야에 몸담아온 프랑스의 NGO ‘Le Partenariat’이 진행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로서, 2006년에 만들어졌으며 프랑스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모델이다. ‘Gaia Center’는 ‘실천을 통한 학습법’을 추구하며, 그 최종 목표는 세계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의 긍정적 변화와 연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행되는 활동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세네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Senegal)’ 프로그램이다. 8~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역할극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8~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역할극을 진행하며, 센터의 전문가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학급 전체가 참여한다. 교사들은 센터방문 전 담당팀이 진행하는 약 2시간 정도의 교육 세션에 참가하며, 교육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데 필요한 교육 도구들을 제공받게 된다.





06

기관명

Lojtra - Association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Young People(With partners: Officine Cittadine, Sensibiliz´Action and Humanitas)

프로젝트명

Global Education Agora

| | |
|-------|--------------------------------------------------|
| 국가 |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
| 주요 활동 | 가두 운동, 토론, 참여형 게임 |
| 수혜자 |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수혜자임 |
| 주제 | 농업, 환경, 이주, 글로벌 불평등 |
| 웹사이트 | www.geagora.eu, www.drustvolojtra.si #geagora |

주요내용

‘개발교육 광장(Global Education Agora)’은 ‘Erasmus+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거리 에니메이션과 개발교육/비정규 교육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거리에서 글로벌 주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행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리를 만남, 교류 그리고 활동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Global Education Agora’는 슬로베니아의 ‘Association Lojtra and Humanitas,’ 이탈리아의 ‘Officine Cittadine,’ 프랑스의 ‘Sensibiliz´Action’ 등의 3개 국가의 20개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글로벌 이슈 관련 거리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활동 중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 활동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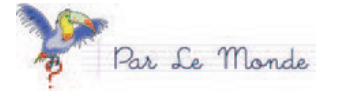
기관명

Par Le Monde

프로젝트명

Pelico's Journey, a path towards global citizenship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디지털 교류 프로그램 |
| 수혜자 | 프랑스 및 4개국에서 매년 3,500명의 아동(7~11세) |
| 주제 | 아동이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중 문화간 교류: 게임, 학교, 전통, 주거, 음식, 노래, 춤, 가족, 야외 활동 등 |
| 웹사이트 | asso.parlemonde.org facebook.com/associationparlemonde |



주요내용

'Pelico's Journey'는 7~11세 아동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교류 프로그램이다. 매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3,5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만의 웹 문서를 만들어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하고 플랫폼을 활용해 서로에게 질문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해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마스코트인 펠리코(Pelico)와 참가 아동들의 정서적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이 지리적·지적 경계를 넘어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서로의 문화에 대해 디지털 상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체험하며, 자신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차이를 구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Pelico's Journey' 프로젝트는 어린 아이들이 상호주의를 기반의 지식 교류 활동을 하면서 관용, 연대, 평등 같은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강한 연대 의식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08

기관명

프로젝트명

PLAY International

Playdagogy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커리큘럼 설계, 훈련, 교사와 교육가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 수혜자 | 6~12세 아동 |
| 주제 | 생활기능, 차별, 양성 평등, 사회적 포용 |
| 웹사이트 | www.playdagogie.org |

주요내용

‘PLAY International’에서 비만 퇴치와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Playdagogy’를 출범시켰다. 본 프로젝트는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 영양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내 수 많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후원하며 6~12세 아이들이 학교 수업 또는 과외 시간에 신체적 활동을 통해 올바른 영양 습관을 배우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laydagogy’ 프로그램은 교사와 코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형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소외 지역의 교사와 교육가들은 ‘Playdagogy’의 커리큘럼과 도구들을 활용해 아이들의 인식 향상, 지식 함양 및 긍정적 행동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09

기관명

Schule im Aufbruch

프로젝트명

Schools in Transformation

| | |
|-------|------------------------------------------------------------------------------------------|
|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
| 주요 활동 | 워크숍, 훈련, 세미나, 미래 역량 훈련, 미래 학습 공간 및 방법, 전체 학교 공동체와 협업, 상향식 운동 지원, 네트워킹 |
| 수혜자 | 교사, 교장, 학생, 학부모 |
| 주제 | 글로벌 목표, 학교에서 유네스코의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시행 |
| 웹사이트 | www.schule-im-aufbruch.de www.facebook.com/InitiativeSiA |

주요내용

'변화하는 학교(Schools in Transformation)'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4가지 학습 핵심목표(pillars of learning)를 기반으로 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 개발교육에 관한 글로벌 실천 프로그램)'의 이행에 기여한다. 'Schools in Transformation'은 학생들이 학교 인프라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교육과 교외 활동을 스스로 담당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Schools in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교육이 현재의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여줌으로써 21세기의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자립심 향상뿐 아니라 학교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여한다. 'Schools in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보다 많은 대중들이 'Global Goals Curriculum(글로벌 목표 커리큘럼)'의 개념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



10

기관명

프로젝트명

Solidarité Laïque, SNUipp, FCPE

Children above all! Stop to the misconceptions about migrants and children migrants

| | |
|-------|--------------------------------------------|
| 국가 | 프랑스 |
| 주요 활동 | 교육적 도구 및 워크숍 |
| 수혜자 | 아동, 학생, 교사, 기관, 커뮤니티 센터, 학부모 |
| 주제 | 이주, 인권, 아동의 권리, 교육권, 오해, 인종 차별 |
| 웹사이트 | www.solidarite-laique.org www.snuipp.fr |

주요내용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했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절대 우리처럼 살 수 없어!”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어느 곳에 가든 매일 듣고 보는 상투적인 표현들이다. 보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다. 책자를 만드는 목적은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입견을 타파하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한편, 이주민들과 그 중 특히 이주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책자에는 새로 전학 온 이주민 아이들이 교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기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교육적 도구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이주민과의 대화와 실제 만남을 장려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11

기관명

프로젝트명

The MY HERO Project

MY HERO Media Arts Education Program

| | |
|-------|------------------------------------------------------------------------------------------------------------------------------------|
| 국가 | 197개 국가 - 'MY HERO'의 온라인 '미디어 아트 교육 프로그램(Media Arts Education Program)'이 197개국의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비영리 예술 및 교육 파트너 기관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음. |
| 주요 활동 | 웹 기반 도구,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워크숍, 영화와 미디어 아트 |
| 수혜자 | 전 세계의 아동, 학생, 교사, 가족, 평생교육 참여자 |
| 주제 |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관용, 사회적/인종적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책임, 환경결정론, 인권 운동, 지지, 평화 |
| 웹사이트 | www.myhero.com www.facebook.com/MyHeroProject |



주요내용

'나의 영웅(MY HERO)' 프로젝트는 미디어, 예술, 기술을 활용해 위대한 영웅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출범 이후로 'MY HERO' 프로젝트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술, 오디오, 단편 영화, 이야기를 통해 영웅을 창조, 공유, 발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MY HERO' 프로젝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1995년 이후로 프로젝트 참가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

2018년, 'MY HERO' 프로젝트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한 새 웹사이트를 제작해 전 세계 참가자들이 영웅을 주제로 한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개인, 가족, 전문가들이 영웅을 주제로 한 에세이, 미술, 오디오, 단편 등을 세계 최대의 영웅 테마 콘텐츠 집합소인 'MY HERO' 멀티미디어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출품했다. 'MY HERO 교사의 방(Teacher's Room)'은 다양한 과목의 교사들이 양질의 프로젝트 기반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MY HERO 학습 모임(Learning Circle)'은 전 세계 교실에서 학생들이 캠페인 또는 타 문화 간 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Y HERO 국제 영화 및 미디어아트 페스티벌(International Film and Media Arts Festival)'은 다큐멘터리, 이야기, 실험적 단편 영화, VR 프로그램, 오디오, 미술작품 속에서 영웅이라는 테마를 탐구하는 연례행사이다.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MY HERO'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방명록에 남긴 짧은 글이 150,000개, 웹페이지 스토리가 50,000개, 그리고 프로젝트에 출품한 단편 영화가 3,000개에 이른다.



12

기관명

프로젝트명

VVOB – education for development

eNSPIRED - an international dialogue on equity in education

| | |
|-------|-------------------------------------------------------|
| 국가 | 벨기에 |
| 주요 활동 | 초대 강연, 워크숍, 세미나, 토론 및 국제적 대화와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기타 활동들 |
| 수혜자 | 교사 교육가, 학생 교사, 교사 및 학교 리더 |
| 주제 | 교육 형평성에 관한 주제, 예를 들어 포용적 교육, 교실 내 취약계층, 성별, 다중언어 사용 등 |
| 웹사이트 | www.enspired.net/en www.facebook.com/enspired.net |

주요내용

‘eNSPIRED’ 프로그램은 영감을 주는 사례를 글로벌 남반구에서 찾아 벨기에의 교육 형평성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수집한 사례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벨기에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매년 국제 강연을 개최하고 몇 개월 후에는 학습 주간을 실시하는데, 이 때 VVOB 파트너 국가의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층적인 국제 교류를 도모한다. 이렇게 모인 전문가들은 워크숍에 참여해 교사-교육가와 학생-교사 간의 대화와 비판적 사고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영감을 주는 사진, 영상, 이야기 및 기타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수집해 오픈 플랫폼(www.eNSPIRED.net)을 통해 공개하며, 교사 교육가들에게는 교육 형평성 증진과 학생 담당 교사들의 세계시민역량을 위해 수업 및 훈련과정에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13

기관명

Youth Ambassadors for the UN-Rights of a Child & SDGs, Caritas Vorarlberg AUSTRIA

프로젝트명

SOLVE IT! Time is running!

| | |
|-------|----------------------------------------------------------------------------------------------------------------------------------------------------------------------------------------------------------|
| 국가 | 오스트리아(Vorarlberg: 포어아를베르크:) |
| 주요 활동 | SDGs를 주제로 한 교육 목적의 뮤지컬 |
| 수혜자 | 아동(11세), 학생, 교사, 정치인, 그 외 누구나 |
| 주제 | 빈곤 퇴치, 기아 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경제적인 청정 에너지, 적절한 일과 경제 성장, 산업과 혁신 그리고 인프라,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행동, 수중 생태계 보호(Life Below Water), 육상 생태계 보호(Life on Land), 평화와 정의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기구와 파트너십 |
| 웹사이트 | Musicals: Caritas Vorarlberg jugendbotschafter_vorarlberg(프로젝트 인스타그램) |

주요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를 전 연령대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뮤지컬이다. 각 SDG는 무대 위에서 수업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달리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씩 표현되며, 정의된다. 올해에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이 'SOLVE IT! Time is running!' 공연에 참여했다.

이 뮤지컬은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3명의 젊은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Leo(레오)'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며, 'real life game(현실 생활 게임)'에 참가할 팀원으로 지원했다. 게임의 우승 상품이 세 명 모두에게 장학금과 무료 숙소를 제공해 주는 실로 엄청난 상품이었기 때문에 레오의 집착은 룸메이트인 'Tessa(테사)'와 'Lucky(럭키)'를 몰래 게임에 등록시키기까지 하였다. 2주 후, 레오와 '레오의 팀'은 'SOLVE IT'의 플레이어로 지명되었다. 오래된 참고에서 게임보드를 찾은 이 세 친구는 이 게임이 자신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게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없기 때문에 탈출하려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들은 고뇌에 빠졌고, 이게 단순한 게임에 불과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이렇게 전개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과감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
- 1 KOICA ODA교육원. 2015. 개발교육 이슈 리포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2 정책브리핑. 2015. “[전문] 박 대통령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담 기조연설”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01376&pkgId=49500634&pkgSubId=&pageIndex=2>
 - 3 UNESCO. 2014. “37 C/4 2014-2021 Medium-Term Strategy”, pp. 13-19. Paris:UNESCO
 - 4 ODA 교육원 & KCOC. 2019.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
 - 5 박수연. 2017. “유럽 개발교육 전략, 사례, 현황과 한국의 과제”. 『국제개발협력』 2017 No.3.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6 GENE. “Introduction”. <https://gene.eu/about-gene/introduction/>
 - 7 IPAD(Instituto Protugues de Apoio ao Gesenvolvimento). 2010. “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 Education(2010-2015)”pp.9, Portugal. Lisbon:IPAD
 - 8 (1)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 2018. “2017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2)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 2018. “2018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유럽 개발교육 혁신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발 행 2019. 12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 교육원
주 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 화 031)740-0750
팩 스 031)740-0765
홈페이지 www.koica.go.kr
디 자 인 전우용사촌㈜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